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4년제 대학교 실용음악학과 현황분석  
및 재학생 만족도 조사

201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남 희

4년제 대학교 실용음악학과 현황분석  
및 재학생 만족도 조사

김 명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남 희

# 인 준 서

김남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의 양적팽창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의 이유로 대학구조조정정책을 시행중이다. 그 결과로, 가시적 성과를 내는 위주의 학과가 성장하고 있으며, 인문대학과 예술대학의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실용음악학과는 미디어의 발전과 대중성에 힘입어 성장하면서 전문대학교를 넘어 4년제 대학교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실용음악학과와 이와 반대로 입지가 줄어드는 클래식음악전공 학과의 개설현황과 입학정원을 지역별로 알아보고 현재 실용음악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음악대학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10년 동안의 학과 개설 현황을 2006년, 2011년, 2016년 각 5년 단위로 분석하였고, 실용음악학과가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 관계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실용음악학과와 클래식음악전공 학과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과시설, 전공 수업, 개인 레슨 등에 대하여 전국 10개교 416명의 재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서울·경기지역은 클래식음악전공의 학과 1개교가 최근(2015) 모집을 중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반면, 실용음악학과는 10년 사이 5개교에서 16개교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충남지역과 전남지역은 클래식음악전공 학과가 감소하면서 실용음악학과가 증설 되었다. 경북지역과 경남지역은 클래식음악전공 학과의 개설 수에 큰 변동 없이 실용음악학과를 증설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교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실용음악학과의 성장요인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오디션프로그램과 학생들이 무대에서 주목 받고 싶은 심리로 인해 실용음악학과에 많은 지원자가 발생하여 그 수요로 인한 학과 개설 수가 증가하였고 가수라는 직업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자녀들의 서포터가 되어 주는 부모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실용음악학과 재학생 416명에게 학과시설과 전공수업, 개인레슨 등의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학과시설 및 장비의 충분성에 대하여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다. 하지만 관리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부정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수업과 1:1개인수업에 관련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특정전공자들은 현재의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 음악대학은 과거와 달리 학과를 유지하는데 힘들어지고 있다. 반면, 실용음악학과는 앞으로의 대중음악 발전에 따라 지속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더욱 심도 있는 이론적 뒷받침과 독창성 없이는 클래식음악과 같은 정체에 빠지게 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음악분야의 도약을 위해 대학관계자나 음악전공자 등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목 차

논문개요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2
3. 연구 방법 ..... 2
4. 연구의 제한점 ..... 2
5. 선행연구 고찰 ..... 3

## II. 이론적 배경

1. 대학 환경의 변화 ..... 8
2. 실용음악학과의 성장 ..... 13

## III.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 20
2. 연구 기간 ..... 21
3. 연구 방법 ..... 22

##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실용음악학과 현황 ..... 24
2. 인터뷰 결과 ..... 39

3. 실용음악학과 학생 만족도 조사 .....	43
<b>V. 결론 및 제언 .....</b>	<b>53</b>

참고 문헌

ABSTRACT

부록- 인터뷰 질문지

## 표 목 차

<표 II-1> 인구변화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변화 예측 .....	8
<표 II-2> 학령인구와 대학 정원 수 변화 .....	9
<표 II-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	10
<표 II-4> 고등교육기관 수 변화 .....	12
<표 III-1> 연도별 학과 개설 수 .....	20
<표 III-2> 인터뷰 대상자 .....	20
<표 III-3> 설문지 대상자 .....	21
<표 III-4> 연구기간 .....	22
<표 III-5> 설문지 구성 및 내용 .....	23
<표 IV-1> 지역별 4년제 대학 수와 음악관련 설치 대학 수 .....	24
<표 IV-2> 서울경기지역 클래식전공과 실용음악학과 현황 및 입학정원 .....	26
<표 IV-3> 강원지역 클래식전공과 실용음악학과 현황 및 입학정원...	30
<표 IV-4> 충청지역 클래식전공과 실용음악학과 현황 및 입학정원...	30
<표 IV-5> 충남지역 클래식전공과 실용음악학과 현황 및 입학정원...	31
<표 IV-6> 전북지역 클래식전공과 실용음악학과 현황 및 입학정원...	33
<표 IV-7> 전남지역 클래식전공과 실용음악학과 현황 및 입학정원...	34
<표 IV-8> 경북지역 클래식전공과 실용음악학과 현황 및 입학정원...	35
<표 IV-9> 경남지역 클래식전공과 실용음악학과 현황 및 입학정원...	36
<표 IV-10> 제주지역 클래식전공과 실용음악학과 현황 및 입학정원...	37
<표 IV-11> 연구대상자 .....	44
<표 IV-12> 연구대상자의 전공 .....	44
<표 IV-13> 학과시설 만족도 .....	45

<표 IV-14> 학년별 학과시설 만족도 1번 문항 .....	46
<표 IV-15> 학년별 학과시설 만족도 5번 문항.....	46
<표 IV-16> 전공수업 만족도 .....	47
<표 IV-1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수업 만족도 .....	48
<표 IV-18> 개인수업(1:1레슨) 만족도 .....	49
<표 IV-19>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인수업(1:1레슨) 만족도 .....	50
<표 IV-20> 기타 만족도 문항 .....	51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등교육기관의 양적팽창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요소인 고등교육 체제의 정비 등의 이유로 정부는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약 40만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대학의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를 지표로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정하여 A ~ E 등급의 단계로 나누어 평가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sup>1)</sup> 이 평가를 통해서 대학은 등급별로 차등된 재정지원을 받게 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은 등급에 따른 학과의 통폐합,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속에서도 실용음악학과는 전문대학을 넘어 4년제 대학의 학사과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디어의 발전과 대중성을 지닌 실용음악이 인기를 끌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중의 수요, 미디어의 노출 빈도 등이 낮은 기존의 클래식음악전공은 실용음악학과의로 흡수되고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급성장한 실용음악학과의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클래식음악전공과 실용음악학과의 지역별 개설 현황 및 입학정원의 변화를 통해 최근 10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고 실용음악학과의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용음악학과의 학과시설, 전공 수업, 개인 레슨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학과 운영 실태를 파악

---

1) 교육부(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개혁.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연구문제1. 최근10년 사이 클래식음악전공과 실용음악학과의 개설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실용음악학과 재학생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 3.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가. 2006년부터 2016년의 대학입시자료를 토대로 학과 개설 수와 입학 정원을 비교하여 실용음악학과 개설 현황을 알아본다.

나. 교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실용음악학과의 성장요인에 대하여 알아본다.

다. 선행연구에서 사용 된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입시자료는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나 2006년과 2011년의 과거 입시자료의 경우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되지 않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각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본으로 펴낸 ‘ㄷ’ 학원의 대학입시자료집을 활용하였다.

둘째, 실용음악학과 재학생 41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0개교에서 설문을 실시하여 본 연구내용이 실용음악학과 재학생 전체의 만족도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 5.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클래식음악전공과 실용음악학과의 개설 현황과 실용음악학과 학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연구로 대학의 실용음악학과 개설, 교육과정 등의 문제점에 관한 논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실용음악학과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연구한 손 옥<sup>2)</sup>은 대학마다 실용음악학과의 개설 수요가 늘어나는 실정이지만 실용음악교육의 역사가 길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확립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였다. 그는 2년제와 4년제의 교과과정과 미국 버클리음악대학(Berklee College of Music)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용음악학과의 교과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실용음악학과와 미국의 실용음악학과의 커리큘럼의 구성을 비교분석한 한승희<sup>3)</sup>는 국내 대학 4년제 3개교와 2년제 3개교를 선정하여 커리큘럼을 비교분석하고 미국의 버클리음악대학,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펜실베이니아예술학교(The University of the Arts)의 재즈작곡 커리큘럼을 알아보고 서울과 경기지역 실용음악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커리큘럼, 전공수업 이론, 실기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

---

2) 손 옥(2003). 실용음악학과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3) 한승희(2013). 국내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 분석 및 인식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과 국내 실용음악학과의 커리큘럼에는 전공에 따라 세분화가 필요하며 학교마다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韓國 大學 實用音樂教育制度의 發展過程에 대하여 이정선<sup>4)</sup>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정원이 부족한 지방의 대학들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위주의 학과들로 재편되고 있으며 인기가 높은 실용음악과가 신설되고 또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폐과되는 실용음악과의 실태를 보고하였다. 양적으로 팽창한 실용음악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 교육시설의 마비와 재즈위주와 실기 중심의 교육내용의 다양성 부족, 교·강사의 부족으로 비전공자에 의해 운영되는 실태, 학생의 졸업 후 진로 문제, 실용음악과의 입시와 사교육 의존문제를 제시하였다. 해결방안으로 대학 내에서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 강좌를 개방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 시설에 투자하고 모든 학생들을 연주자, 작곡가로 키우기 위한 교육이 아닌 음악관련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을 제시하였다.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뮤직 비즈니스 관련 학제 시스템 현황 연구에서 노하영<sup>5)</sup>은 국내 음악 산업의 문제점을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내 뮤직 비즈니스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대학·대학원의 시스템과 커리큘럼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음악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음악 산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측면, 교육적 측면, 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최근 이슈를 다뤘다. 연구결과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 시스템에 문제점으로 첫째, 전공 실기, 앙상블 등 실기 위주의 수업의 비중이 높아 학생들이 현장에 진출했을 때 아티스트로 본인의 개성을 찾기 어려운 실태와 둘째, 예술경영 관련 전공 및 학과들의 경우 학생 선발

---

4) 이정선(2010). 韓國 大學 實用音樂教育制度의 發展過程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노하영(2016).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뮤직 비즈니스 관련 학제 시스템 현황 연구 : 관련 전공 대학·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시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실기, 면접 등을 진행하지 않고 수능과 학생부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K-POP 주류에 의한 한국대중음악 산업의 변화에 따른 실용음악교육 개선에 대하여 이선호<sup>6)</sup>는 대중음악산업과 대학의 실용음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첫째, 진로방향에 따라서 커리큘럼에 변화를 줘야하고 둘째, 실무경력 중심의 전문 강사를 채용해야 하며 셋째, K-POP과 SNS가 병합하여 대중음악시장의 유통망에 변화가 일어났기에 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중음악산업과 뮤지션 육성을 위한 대학의 실직적인 교육방향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실용음악 교육기관의 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박철홍<sup>7)</sup>은 기존의 음악대학이 학령인구감소와 실용음악의 유입으로 수요자가 분산되면서 어려워진 실상을 설명하였다. 백화점식 나열방식의 특색 없는 학과 배치로 모든 종합 대학이 유사한 예술교육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요 이상의 학생들을 배출함으로써 실업자 양성소로 전락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마스크이 청소년들을 부추기고 있으며 실용음악 장르가 돈벌이 수단 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용음악의 부정적 기능을 설명하였다.

실용음악학과 보컬 교육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원재웅<sup>8)</sup>은 실용음악 보컬교육의 문제점으로 첫째, 보컬 트레이닝을 통하여 기능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나 반복 교육에 의해 획일적인 가창법을 갖게 된다는 점과 둘째,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중음악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을 지적하였다. 셋째, 실용음악과의 인기에 무리하게 많은 학생을 모집하여 발생하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문제 삼았다. 넷째, 많은 수험생을 짧

---

6) 이선호 (2015). K-POP 주류(Mainstream)에 의한 한국대중음악산업의 변화에 따른 실용음악 교육 개선에 대한 소고. 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 10(6).

7) 박철홍(2012). 실용음악 교육기관의 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 음악과 민족. 44.

8) 원재웅(2013). 실용음악 보컬 교육의 허와 실: 대학 실용음악과의 교육을 중심으로. 대중음악. 1(12).

은 시간에 판단해야하는 입시제도를 지적하였다. 다섯째, 실용음악과의 태생적 구조적 특성상 갖고 있는 편중된 장르 교육을 지적하였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인희, 손준혁<sup>9)</sup>은 <슈퍼스타 K>를 중심으로 왜 사람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열광하게 되는지에 대한 심리적 요인과 프로그램의 구조적 요인, 현대사회의 기술적 요인을 연구하였다. 연구에서는 오디션프로그램의 심리적 성공요인을 공정한 경쟁에 대한 갈망과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가져다주는 긴장감, 그리고 대리만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구조적 요인으로는 경쟁구도 형식에서 느끼는 자극과 스킬로 인한 시청자들의 몰입도 상승, 시청자의 참여도를 높인 시스템의 변화, 미디어 접촉의 용이성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과열경쟁조장, 승자 독식 구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유명 실용음악과를 중심으로 실용음악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연구한 하상욱<sup>10)</sup>은 전국 실용음악과 개설현황을 파악하고 학과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학과의 정원, 경쟁률을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과 시설현황,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실용음악학과 개설 현황과 교육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용음악의 부정적 기능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실용음악학과의 개설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클래식음악전공과 실용음악학과 개설 현황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 실용음악학과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학과 만족도 조사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두 분야의 학과개설

---

9) 조인희, 손준혁(2011). 오디션 프로그램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슈퍼스타 K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5(3).

10) 하상욱(2014). 실용음악교육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 : 국내 유명 실용음악과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영상정보대학원.

수와 입학정원을 비교하고 실용음악과의 학생들이 학과시설, 전공수업, 개인 레슨 등에서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현재 대학가의 흐름과 실용음악학과의 성장과 원인을 살펴 보기 위하여 대학 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을 살펴보고 실용음악의 성장요인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였다.

### 1. 대학 환경의 변화

#### 가. 학령인구의 변화

학령인구는 각급 교육기관에 재학할 적령기의 인구를 말하는데, 만 나이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6-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대학교는 18-21세인 인구를 합산한 것이다.<sup>11)</sup> 2011년에 조사된 <표 II-1> 대학교 학령인구 변화 추이<sup>12)</sup>에 따르면 대학교 학령인구는 2020년 200만 명, 2060년에는 1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II-1> 대학교 학령인구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총인구	대학교 학령인구	
		인구	총인구대비 비중
1960	25,012	1,941	7.8
1970	32,241	2,218	6.9
1980	38,124	3,632	9.5
1990	42,869	3,663	8.5
2000	47,003	3,275	7
2010	49,410	2,672	5.4
2020	51,435	2,308	4.5
2030	52,160	1,796	3.4
2040	51,091	1,751	3.4
2050	48,121	1,596	3.3
2060	43,959	1,26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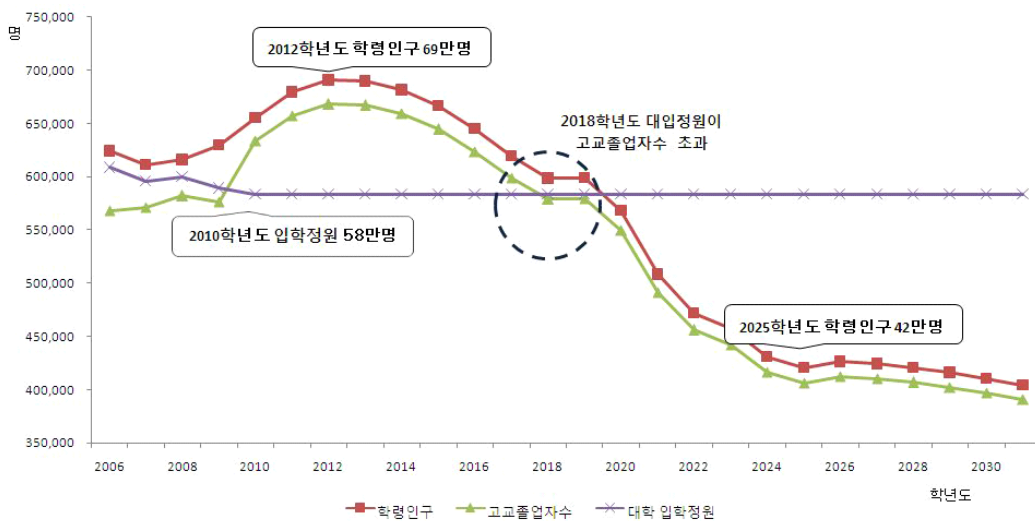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1)

11) 이상훈(2015). 대학의 메카모포시스. 고양: 지식공감.

12) 황양주 외1명(2001). 인구변화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변화 예측. 통계청. (재인용)

<표 II-2> 학령인구와 대학 정원 수 변화<sup>13)</sup>를 보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입학자원 규모도 급감하여 2018년에 이르면 대학이 수용가능한 정원의 최대치보다 대학에 진학하게 될 입학자원의 수가 적어지는 ‘입학정원의 역전’ 현상이 예측되고 10년 후인 2023년에는 그 차이가 1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정부가 시행할 구조조정정책과 입학정원 감축 등이 반영되지 않은 예측이다. <sup>14)</sup>

<표 II-2>학령인구와 대학 정원 수 변화



출처: 최경서(2014). 재인용.

## 나. 고등교육의 경쟁력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양적 성장으로 고등교육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세계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제는 나라 안의 경쟁이 아닌 국가 간의 경쟁과 비교가 심화 되었

13) 최경서(2014).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고등교육기관 통계합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재인용)

14) 이상훈(2015). 전계서.

는데 1980년대에 WEF(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종합지수체계’에 이어 IMD(세계경영개발원)의 ‘세계경쟁력연감’이 발표되면서 부터로 볼 수 있다. 이 두 기관은 국가경쟁력 지표체계로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sup>15)</sup>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6)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수율은(2015년, 25~34세 기준)은 무려 6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sup>16)</sup>. 우리나라는 8년째 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학력 인플레이 현상을 초래했으며 학력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반면, OECD 1위인 대학진학률과 달리 대졸자(전문대 졸, 대학원 석·박사 포함)의 고용률은 최하위권이다. 고등교육과정 이수자(2015년, 25~34세 기준)의 고용률은 76%로 OECD 평균인 83%에 미치지 못한다.<sup>17)</sup>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 취업률은 <표 II-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8년을 정점으로 2010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표 II-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고등교육 기관전체	75.4	75.8	76.7	76.4	55.0	58.6	59.5	59.3	67.0
진두대학	84.2	85.2	85.6	86.5	55.6	60.7	60.8	61.2	67.8
대학	67.3	68.0	68.9	68.2	51.9	54.5	56.2	55.6	64.5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취업통계연보 |

이렇듯 취업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면서 ‘생산가능 인구층’ 진

15) 최상덕(2008).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6) 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indicators. <http://www.oecd.org/>

17) 상계서.

입이 늦어지고 있다. 또한,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졸채용확대, 전문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같은 직업전문 중등교육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sup>18)</sup>

21세기는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이며 지식기반사회이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곧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표방하기에 세계 각국에서는 경쟁적으로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다. 대학구조조정정책**

70년대 정부는 간접적 지원 정책으로 ‘실험대학평가’ 사업을 시작하며 대학의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개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로 졸업학점의 개편, 계열별 학생모집, 부전공, 복수전공제를 실시하게 만드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80년대 초에 정원정책, 학생지도, 입시제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대학정원을 대폭 증원하게 되었다. 이것은 현재 고등교육 수준의 질적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과 직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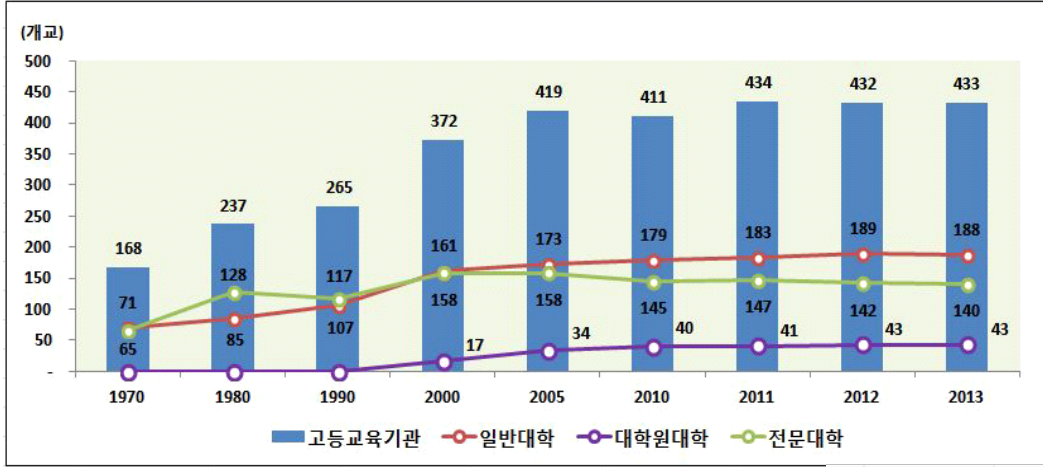
2000년 이후 IMF 여파와 그 동안 몸집 불리기에 급급했던 대학은 교육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구조개혁 요구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재정악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sup>19)</sup>

---

18) 이상훈(2015). 전계서.

19) 이상훈(2015). 상계서.

<표 II-4> 고등교육기관 수 변화



출처: 교육부(2013)

<표 II-4> 고등교육기관 수 변화<sup>20)</sup>를 보면 1970년 168개교의 고등교육기관 수가 그 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는 일반대학 188, 전문대학 140, 교육대학 10, 산업대학 2, 대학원대학 43개교, 기타 50개교로 총 433개교로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한국의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우수권 대학을 제외한 이하 대학에 대하여서는 강제로 정원을 줄여나가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이와 같은 대학 정원을 줄이는 정책의 시행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고교졸업생이 2023년 4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 수 대학에서 대규모의 미충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sup>21)</sup>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향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평가지표 발전 측면에서 가장 진보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온 지표일뿐더러 평가지표의 세부 산식 또한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했다

20) 교육부(2013). 교육기본통계.

21) 최경서(2014). 전계서.

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발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22)</sup>

## 2. 실용음악학과의 성장

### 가. 실용음악과 대중음악의 정의

‘실용음악’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후기 낭만파 작곡가인 힌데미트(Hindemith:1895~1963)의 게브라우흐스무지크(Gebrauchsmusik)에서 시작되었다. 20세기 후기낭만파와 인상파 작곡가들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작품과 기교에 치우쳤고 후기 낭만파의 <예술을 위한 예술>에 대한 반동으로서, 20세기 초 힌데미트 등에 의해 제창된 것이다. 뜻은 가정이나 모임에서 실제로 아마추어가 연주할 수 있도록 작곡된 음악을 말하며 특징은 단순 명쾌하고 연주가 용이하여 어느 성부나 동등한 관심을 가지며, 악기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앙상블을 위한 음악이라 할 수 있다.<sup>23)</sup> 그러나 지금 흔히 사용되는 실용음악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아마추어를 위한 쉬운 음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사용의 목적을 가진 전문적인 음악들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함유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영상음악·무대음악·대중음악·기능음악 등 연주회장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식의 예술음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음악을 총칭한다. 때문에 각 대학의 실용음악학과 전공과 학과 명칭은 실용음악, 생활음악, 대중음악, 포스트모던음악, 방송음악, 영상음악, 컴퓨터음악, 디지털음악,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한다.<sup>24)</sup>

‘대중음악’을 일반적으로 정의한다면 “많은 사람 혹은 대중들이 향유하는 음악으로, 그것을 즐기고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

---

22) 이상훈(2015). 전계서.

23) 클래식음악용어사전(1977). 삼호뮤직.

24) 박홍철(2002). 실용음악의 현황과 전망. 음악과 민족. 23.

은 음악”<sup>25)</sup>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민주적이고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대중음악은 판매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업적 음악이라는 정의도 있다. 대중음악의 상품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러한 정의는 음악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질 낮은 음악으로 평가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sup>26)</sup>

## 나. 디지털미디어와 대중음악

미디어(media)란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매체를 지칭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우편이나 전화에서부터 대중을 상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라디오, 텔레비전 및 신문, 잡지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오늘날에는 다양한 뉴미디어가 개발되고 있다. 미디어와 가장 관련 깊은 문화 개념을 꼽자면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대중문화를 영어로 번역하면 2가지 의미로 나뉜다. 하나는 ‘mass culture’로 매스미디어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된 문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생산과정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popular culture’로 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라는 의미로 문화의 수용과 소비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따라서 ‘mass culture’와 ‘popular culture’의 개념에 따라 생산과 소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sup>27)</sup> 대중음악은 미디어의 발달이 있어 가능했기 때문에 전자 테크놀로지가 없다면 21세기 대중음악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대중음악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달되고 유포된다는

25) M. Vinet, *Evolution of Modern Popular Music. A History of Blues, Jazz, Country, R&B, Rock, Rap*, Quebec: Wadem Publishing, 2004, p.18. ‘대중’이란 용어가 특정 종류의 음악과 처음으로 연결된 것은 1855년 출판된 윌리엄 채플의 『옛날의 대중음악(Popular Music of the Olden Times)』에서 부터였고, 대중음악이란 용어는 1930년, 1940년대 이후 널리 통용되었다고 한다.

26) 이수완(2014). 대중음악 입문: 문화연구와 만나는 대중음악. 경성대학교 출판부.

27) 김덕원(2015). 10대를 위한 미디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혁명은 대중음악을 출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와 발전은 대중음악의 형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면 한국이 약 3분 내지 4분 정도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작은 소리도 얼마든지 증폭시킬 수 있는 마이크로폰이 발명되면서 미성이 출현할 수 있었다. 특히 유성기의 발명은 대량생산, 대량 유포, 대량 소비라는 변화를 가져오면서 대중가요가 출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sup>29)</sup>

## 다. 방송매체의 영향력

### (1) 오디션 열풍

한국에 뮤지션(Musician), 싱어송라이터(Singer-songwriter) 바람이 불게 된 것은 2009년 <슈퍼스타K>를 시작으로 2010년 <위대한 탄생>, 2011년 <K팝스타>, 2012년 <보이스 코리아>, <SHOW ME THE MONEY>, 2015년부터 시작한 <슈가맨>과 2016년 <위키드>, <판타스틱 듀오>, <프로듀스 101> 등 지속적으로 방송되는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었다. 그 중 <슈퍼스타K>는 시즌 1 성공 이후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여 시즌 2에서 시청률 19.3%를 달성하며 케이블 방송 사상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 <슈퍼스타 시즌 2>의 성공요인으로는 첫째, 평범한 사람의 성공과 승리에 대한 관중의 대리만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요계의 몇 년간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보다 아이돌 그룹으로 승부를 보는 극심한 편중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실력과 가수의 무대를 보며 가수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는 점이다.<sup>30)</sup> 허각 이외에도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서인국, 이하이, 투

28) 사이먼 프리스, 윌 스트로, 존 스트리트(2005). 케임브리지 대중음악의 이해. 서울: 한나래.

29) 장유정, 서병기(2015). 전계서.

30) 이동연(2011). 아이돌- H.O.T에서 소녀시대까지, 아이돌 문화 보고서. 서울: 이매진.

개월, 울랄라세션, 버스커버스커, 악동뮤지션 등이 실력을 인정받고 활약하고 있다.

본래 대중음악은 10대 청소년들을 위주로 돌아간다. 청소년들이 가장 큰 소비자이므로 음악 시장에서 기성세대들은 소외되었다. 때문에 음반시장은 10대 위주의 음악이 주를 이루는데 2010년 이후 미디어의 영향으로 음악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10대 위주의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성세대 역시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sup>31)</sup> 일렉트로닉 후크송의 쏠림 현상은 식상함과 지루함을 야기했다.<sup>32)</sup> 이때 등장한 것이 MBC <썸머 친구들>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음악프로그램과 달리 1970년대 유행한 포크음악 장르를 끌어냄으로써 기성세대의 추억을 이끌어내고 큰 공감을 얻었다. 이후, 10대 중심의 음악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보고 만든 음악 경연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가 등장하였고 <불후의 명곡>, <복명가왕>, <판타스틱듀오>, <신의 목소리>과 같은 프로그램은 가족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기존의 곡을 리메이크하여 부른다. 리메이크곡을 부름으로써 대중음악은 한층 넓은 수용자 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신세대에게는 신곡이나 다름없는 곡을 기성세대는 귀에 익은 선율을 통해 그 음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기존의 10대 뿐 아니라 30, 40대의 팬 층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sup>33)</sup>

## (2) 한류시대의 K-POP

한류는 대중문화 현상이며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세계 각국의 대중문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대중문화가 다른 나라의 대중문화로

---

31) 박선민(2015). 대중가요 리메이크와 복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32) 장유정, 서병기(2015). 전계서.

33) 박선민(2015). 전계서.

자리매김 한다는 것은 한류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는 일명 'K-POP'이라고 불리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K-POP이라는 용어의 확립은 2000년대 초부터이다. 외국의 팝을 듣고 자란 작곡가들이 우리만의 색채를 함유하고 트렌디한 음악을 만들어내어 외국으로 역수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K-POP은 한국대중음악 전체가 아닌 '아이돌'이 부르는 음악에 한정된다.<sup>34)</sup> 완벽한 동작과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 그리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뮤직비디오가 더해지면서 외국의 팬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고 K-POP 열풍을 만든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들리는 것만큼이나 보이는 것도 중요시된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만의 연습생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오디션은 넘쳐나는 지망생으로 더욱 치열해진다. 2009년 2월 JYP엔터테인먼트가 연습생 3명을 선발하는데 2만 명의 지원자가 몰려 약 7000대 1이라는 막대한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연예인 되기 위해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동기부여도 있지만 그 보다 뒤따라오는 부와 명예, 인기 등에 관한 보상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연습기간 동안 수없이 단련된 노래와 춤의 실력은 지금의 K-POP이 존재하게 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sup>35)</sup> 또한, 인터넷으로 손쉽게 K-POP을 듣고 춤과 노래를 따라 배울 수 있다. 한국의 K-POP을 부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뜨겁다. 지금의 미디어 기술의 발달의 속도를 생각해 보면 K-POP은 지금보다 더 빨리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사회구조로 보았을 때 K-POP의 규모와 영향력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4) 김창남(2012). 전계서.

35) 김학선(2012). K.POP 세계를 홀리다. 서울: 을유문화사.

## 라. 실용음악학과의 지원율

실용음악학과<sup>36)</sup>는 1988년 서울예술전문대학에서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전문대학에만 개설되었던 실용음악은 1997년에 4년제 대학인 한서대학교와 대구예술대학교를 시작으로 개설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도 많은 대학에서 실용음악학과, 대중음악학과, 영상음악학과, 생활음악학과 뮤지컬학과 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개설되고 정원을 확충하고 있다.<sup>37)</sup> 또한 실용음악학과의 성장에 발맞춰 공연기획, 음향엔지니어, 무대예술 등의 학과도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실용음악학과가 정확히 어느 시점을 시작으로 선호하는 학과로 자리매김하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방송매체의 노출과 대중음악의 인기 등이 학과의 지원율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2014년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의 실용음악과 보컬전공은 5명 정원에 2,356명이 지원하여 471.4:1을 기록하고 단국대 천안캠퍼스의 생활음악과 보컬전공역시 4명 정원에 1,173명이 지원하여 293.25: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5년 호원대 실용음악학부 보컬 부문은 정시모집으로 10명을 선발했지만 무려 2,666명이 지원하여 266: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2016년 서경대학교 실용음악학과는 407:1의 경쟁률을 보였다.<sup>38)</sup> 전문대학에서도 실용음악학과의 지원율은 타 학과 보다 높은 지원율을 보인다. 동아방송대학교의 남자 보컬 부분은 13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는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이는 보컬전공 이외 기타 전공에서도 117:1의 경쟁률

36) 클래식 전공의 음악대학을 제외한 실용음악관련 성격을 띠는 기독교실용음악, 뉴미디어 음악, 연극뮤지컬, 전자디지털음악, 뉴미디어작곡, 뮤지컬, 포스트모던음악, 생활음악, 현대 실용음악, 공연영상, 공연예술, 미디어작곡, 응용작곡, 방송음악, 뮤지컬실용음악, 성악뮤지컬, 방송공연예술, 작곡뮤직컨텐츠, 뮤직프로덕션, 뮤지컬CCM실용음악, 작곡컴퓨터, 대중음악, 음악공연 등의 명칭으로 개설된 전공과 학과 모두를 실용음악학과로 총칭한다.

37) 박철홍(2002). 실용음악의 현황과 전망. 민족음악학회. 23.

38) 'K팝스타4' 정승환, 서경대 실용음악학과 수시합격. 일간스포츠 2015.10.31.황소영기자

을 기록하였다.

대학의 공시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 ‘대학 알리미’<sup>39)</sup>에 ‘실용음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검색하면 학과는 2015년을 기준으로 80여건으로 검색된다. 4년제인 대학교는 35여개, 전문대학은 40개가 넘는다. 실용음악학과의 특성상 다양한 학과의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대중문화예술, 방송예술, 포스트모던 등의 이름으로 검색한다면 더 많은 실용음악에 관련된 학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확대와 K-POP의 성장, 음악에 대한 다양한 흥미를 만족시켜주는 실용음악학원과 오디션을 통한 스타의 탄생들이 실용음악학과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실용음악학과의 인기는 각 대학의 정원 변화와 치열한 경쟁률로 확인할 수 있다.

---

39) 각 대학의 공시정보를 비교 검색할 수 있고 대학별 취업률,등록금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http://www.academyinfo.go.kr>

### I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클래식음악과와 실용음악학과의 개설 현황을 비교하고 실용음악학과 재학생들에게 학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연구대상

##### 가. 대상 학교

음악대학의 클래식음악전공과 실용음악학과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연도별 학과 개설 수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연도별 학과 개설 수

	음악대학 수	클래식음악전공 수	실용음악학과 수
2006년	93	84	23
2011년	99	86	43
2016년	99	77	51

##### 나.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는 임의로 선정한 대학교 교수 2명과 고등학교 교사 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인터뷰 대상자

준급	소속	
클래식	음악대학 교수	A 교수
실용음악	실용음악과 교수	B 교수
	실용음악과 교사	C 교사, D 교사

#### 다. 설문지 대상자

실용음악학과 재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역별로 임의 선정하여 서울·경기지역 소재의 대학교 4개교,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 6개교 (강원도 1개교, 충남 2개교, 전남 1개교, 경북지역 1개교 경남지역 1개교 )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의뢰하였다. 연구에서는 총 416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지 배부와 회수 현황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설문지 대상자

지역	학교	배부	회수	불량	분석대상
수도권	서울 A	70	40	4	36
	서울 B	50	50	10	40
	경기 A	70	57	8	49
	경기 B	30	25	5	20
지방	강원 A	150	134	34	100
	충남 A	20	20	2	18
	충남 B	100	88	13	75
	전남 A	40	38	9	29
	경북 A	30	30	5	25
	경남 A	30	25	1	24
거	10	590	507	91	416

## 2. 연구 기간

연구의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관련 도서들을 수집하고 연구의 주된 자료인 입시자료집은 2015년 10월부터 수집하여 2015년 12월까지 수집을 마쳤다. 연구기간은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연구기간

내 용	연구 기간
문헌 연구	2015년 10월 ~ 2016년 05월
자료 수집	2015년 10월 ~ 2015년 12월
자료 정리	2016년 01월 ~ 2016년 05월
자료 분석	2016년 03월 ~ 2016년 05월
인터뷰 진행	2016년 05월 ~ 2016년 05월
인터뷰 정리	2016년 05월 ~ 2016년 05월
설문지 배부 및 회수	2016년 08월 ~ 2016년 09월
설문지 분석	2016년 10월 ~ 2016년 11월

수집한 자료의 정리는 2016년 1월에 시작하여 2016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자료 분석 기간은 2016년 3월에 시작하여 5월까지 분석 하였다. 인터뷰와 인터뷰 내용 정리는 2016년 5월 중에 실시하여 5월까지 마쳤다. 설문지는 2016년 8월에 배부하여 9월 안으로 회수하였으며 2016년 11월 분석을 진행하였다.

### 3. 연구 방법

#### 가. 대상 학교

2006년과 2011년의 과거 모집현황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어려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각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본으로 펴낸 ‘ㄷ’학원의 대학입시자료집을 토대로 하였으며 2016년 모집현황은 대학입시자료집 및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정리하였다. 자료는 2006년, 2011년, 2016년의 5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 나. 인터뷰

실용음악학과의 발전에 대하여 대학 교수,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은 5-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인터뷰 시간은 15분 - 20 분정도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부록>에 추가하였다.

#### 다. 설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구성은 선행연구<sup>40)</sup>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의 문항은 총 25문항으로 내용은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설문지 구성 및 내용

구성 개념	문항 수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변수 구성	4	1 2 3 4	성별 학년 성공 학교 소재지
학과 시설에 관한 투입	5	1 2,3 4 5	물품, 장비의 불충분 여부 장비, 기기의 관리 C부 장비, 기기의 활용도 여부 연습공간의 불충분 C부
진공수업(클래스 수업)에 관한 문항	5	1 2 3 4,5	교수(강사)의 전문성 여부 효율적인 강의실 인원 여부 교수활용 여부 수업의 만족도 여부
개인레슨 (1:1)수업에 관한 투입	5	1 2 3 4,5	교수(강사)의 전문성 여부 수업 이해도 여부 실력 향상 여부 수업 만족도 여부
기타투입	6	1,6 2,3,4,5,	전공분야 관심, 흥미 여부 학과 만족도 여부

40) 손 옥(2003). 전계서.  
한승희(2013). 전계서.  
하상욱(2014) 전계서.

## IV. 연구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전국 8도 서울·경기지역, 강원지역, 충북지역, 충남지역, 전북지역, 전남지역, 경북지역, 경남지역으로 분류하여 2006년, 2011년 2016년 단위로 각 지역의 클래식음악전공과 실용음악학과의 설치수를 비교하였으며 입학정원의 증감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실용음악학과의 발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학교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용음악학과의 학과시설과 수업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실용음악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실용음악학과 현황

#### 가. 지역별 4년제 설치 대학 수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부실대학을 선정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노력을 계속 중에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속에서 음악대학은 통합 또는 폐과되고 있다. 하지만 실용음악과는 신설되고 있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은 2006년, 2011년, 2016년의 전국 대학 수를 조사한 것이다.

<표 IV-1> 지역별 4년제 대학 수와 음악관련 설치 대학 수

지역	2006년		2011년		2016년	
	대학 수	음악대학 수	대학 수	음악대학 수	대학 수	음악대학 수
서울·경기	68	37	68	39	70	40
강원도	8	3	8	3	8	3
충청북도	8	2	10	2	10	3
충청남도	21	10	22	12	23	13

	2006년		2011년		2016년	
전라북도	9	9	9	9	9	6
전라남도	17	11	18	11	19	9
경상북도	21	7	21	8	19	9
경상남도	18	9	22	11	23	12
제주	2	1	2	1	2	2
산업대	17	4	11	3	6	2
총 합계	189	93	191	99	184	99

자료출처: '2017학위-대학입시자료집'

경기도 지역에서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늘어난 대학은 산업대로 분류되었던 <서울산업대>가 2010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일반대로 전환되고 산업대학교인 <한경대학교>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2012년 일반대로 전환된 수이다. 그리고 전문대학인 <신흥대학교>와 <한북대학교>가 통합하여 2014년 <신한대학교>를 출범하면서 증가하였다.

강원도 지역은 2007년 2년제 전문대학인 <원주대학>과 4년제 대학 <강릉대학교>가 통합되면서 <강릉원주대>로 통합되었다.<sup>41)</sup> 충북지역은 2009년에 <중원대학교>가 개교하였고, 산업대학교였던 <충주대학교>가 일반화되면서 2012년 3월 <한국철도대학교>와 통합하여 <한국교통대학교>로 변경되었다.<sup>42)</sup>

충남지역을 살펴보면 2006년 <천안대학교>가 <백석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을지의과대학교>는 2007년 <을지대학교>로 출범하였으며, 2006년과 2011년 사이에 늘어난 대학은 <우송대학교>로, 2008년 <우송공업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통·폐합 승인 인가를 받은 뒤 일반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기 때문이다.<sup>43)</sup> 2011년과 2016년 사이에는 산업대학

41)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wnu.ac.kr/mbs/kr/main\\_index.html](https://www.gwnu.ac.kr/mbs/kr/main_index.html)

42) 한국교통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http://www.ut.ac.kr/index.html>

43) 우송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wsu.ac.kr/main/index.jsp>

교였던 <한밭대학교>가 2012년 일반대 승인을 받았다.

경북지역의 <건동대학교>는 1992년 개교하여 2012년 8월 자진 폐교하였으며, <경북외국어대학교> 또한 2005년 개교하여 2013년 자진 폐교하였다. <가야대학교>는 1993년 경북지역에 개교하여 현재는 경남지역으로 캠퍼스를 이전하였다. 경남지역의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동명대학교>와 <영산대학교>가 산업대학교에 속하였으나 일반대로 전환되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2009년 3월 개교하였다가, 2015년 9월 28일 울산과학기술원법이 시행되어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되었다.

#### 나. 음악대학과 실용음악학과 개설현황 및 모집 정원

서울·경기지역, 강원지역, 충북지역, 충남지역, 전북지역, 전남지역, 경북지역, 경남지역, 제주지역의 연도별 학과 개설과 입학정원을 정리하였으며 <표 IV-2>는 서울·경기지역의 현황이다.

<표 IV-2> 서울·경기지역 클래식전공과 실용음악학과 현황 및 입학정원

대학 명	2006			2011			2016		
	음악	실용	정원	음악	실용	총원	음악	실용	정원
가천대(경원대)	0		142	0		130	0		110
가톨릭대	0		52	0		52	0		50
강남대	0		96	0		52	0		48
경기대		0	20		0	20		0	20
경희대	0	0	130/35	0	0	131/30	0	0	127/80
국민대	0		101	0		101	0		102
고려스도대(30)	0		59	0		40	0	0	17/20
단국대	0	0	80/40	0	0	120/60	0	0	87/54
대주대	0		80	0		64	2015부터 모집 중단		
동덕여대	0	0	90/40	0	0	93/40	0	0	82/37
루터대	2007년 신설				0	30	2011년 폐과		

	2006			2011			2016		
	0			0			0		
명지대	0		75	0		75	0		61
식음대	0		74	0		64	0		50
실용대	0		110	0		98	0		74
서경대	0		52	0	0	53/37	0	0	58/66
서울기록대	0		30	0		24	0		26
서울대	0		120	0		117	0		119
서울시립대	0		31	0		30	0		29
서울수학대	0		89	0		80	0	0	65/36
서울장신대	0		47	0		35	0		30
성결대	0		61	0		53	0		53
성신여대	0		132	0	0	140/20	0	0	133/41
세종대	0		40	0		45	0		46
수원대	0		140	0		140	0		135
숙명여대	0		141	0		140	0		133
신안대	2014년 신설							0	32
인양대	0		70	0		78	0		61
연세대	0		150	0		130	0		120
예운예술대	진북캠퍼스에 위치						0	0	25/43
용인대	2011년 신설				0	17		0	29
이화여대	0		155	0		150	0		123
장로회신학대	0		50	0		50	0		50
중부대	충남캠퍼스에 위치							0	45
중앙대	0		125	0		152	0		124
홍익대	0		70	0		70	0		60
후기여대	0		111	0		111	0		129
킬본대	0		20	0	0	20/5	0	0	10/10
평택대	0		43	0	0	50/72	0	0	46/40
아양대	0		122	0	0	110/30	0	0	103/30
한양신학대	0		20	0		20	0		20
아세대	0	0	70/15	0	0	64/25	0	0	53/25
협성대	0		80	0		79	0		57
총 합 계	36	5	3058/150	36	12	2961/436	36	16	2621/608

자료출처: '14년 학원 대학입시 자료집

서울·경기지역에서는 경원대와 가천의과대학이 2012년 통합되면서 <가천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경원대학교 음악대학이 예술대학으로 통합되었으며 기존에 경원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미술대학, 생활과학대학도 현재는 예술대학 안으로 통합되어 있다. <경희대학교>는 음악대학을 서울캠퍼스에 두고 실용음악학과를 수원캠퍼스에서 모집하였다. 경희대학교는 2006년 예술·포스트모던음악전공, 연극영화전공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2011년 입시자료에서부터는 예술학부에서 분리되어 도예학과,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연극영화학과로 분류된다. 더 자세히 보면 연극영화학과에 영화연출 및 제작전공, 연극 및 뮤지컬연기전공으로 세분화되어 모집한다. 때문에 2011년 급격하게 늘어난 모집인원은 연극영화학과의 모집정원 40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대학교>는 2015년 9월 <KC대학교>로 변경하였으며 음악학부에 기독교실용음악전공과 뉴미디어음악전공을 신설하였다. <단국대학교>는 서울캠퍼스에 음악대학을 충남캠퍼스에 생활음악과를 운영하였다. 생활음악과 내부에는 뮤지컬전공이 속하여 있었다. 2007년 서울에서 경기도로 캠퍼스를 이전하였다. <서경대학교>는 2006년 음악학부에서 2011년 입시자료에는 재즈전공과 클래식기타전공, 뮤지컬전공 등 실용음악관련 정원을 받으며 2016년에는 예술대학에 음악학부, 뮤지컬학과, 실용음악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신여대>는 2011년에 문화예술대학에 현대실용음악학과를 신설하였다. <한양대학교>도 2006년에는 서울캠퍼스에 음악대학만 개설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경기캠퍼스에 실용음악학과를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교회음악과만 개설되어 있었으나 2012년 실용음악과가 신설되었다. 신흥대학교와 한북대학교는 2014년 통합되면서 <신한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공연예술학과를 개설하였다. 다른 대학과 차별

된 점은 방송음악(K-POP)전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공을 개설하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예원예술대> 음악관련 학과는 전북에서 2014년 경기캠으로 이전하였으며 음악과와 실용음악과 이외 뮤지컬학과 미디어예술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용인대학교>는 2006년에는 국악과만 개설되어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2011년 뮤지컬연극학과에서 2015년에 뮤지컬·실용음악과라는 이름으로 개설하였다.

<중부대학교>는 경기도와 충남에 캠퍼스를 두고 현재 실용음악학과는 경기도에 위치하여 있으며 뮤지컬·음악학과는 충남에 위치하여 있다. 뮤지컬·음악학과는 2015년도를 마지막으로 입학정원을 모집하지 않고 있어 2016년부터는 경기도에 위치한 실용음악학과만 모집하였다. <칼빈대학교>는 교회음악과만 개설되어 있었으나 2009년부터 실용음악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세대학교>는 2006년 음악학부와 뮤지컬학부로 나뉘어 있었다. 2011년에는 뮤지컬학부라는 명칭이 미디어영상학부 공연영상전공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공연예술학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루터대학교>는 2007년 공연예술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지만 2011년을 마지막으로 모집하였으며 현재는 폐과되었다.

서울·경기지역은 2006년 37개 음악대학 중 경기대를 제외한 36개 대학이 클래식음악전공 학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진대학교가 2015년 클래식음악전공의 모집인원을 중단하였으나 예원예술대학교가 전북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이전하면서 클래식음악전공 학과는 10년 전과 동일하다. 2006년 실용음악학과의 비중은 5개교에서 2011년에 12개교로 증가하였다. 그 후 2016년에 와서는 실용음악학과가 4개교 더 개설되어 16개교로 증가하였다. 이는 실용음악학과의 비중이 2006년과 비교하면 13.8%에서 현재 40%로 약 3배의 성장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모집정원에서는 2006년 클래식음악전공자를 3058명 모집하였으며 실용음악 전공자는 150명에

그쳤다. 2011년에는 클래식음악전공자가 감소하는 반면 실용음악 전공자는 436명으로 2006년보다 3배 가까이 정원이 확충되었다. 2016년 역시 클래식음악전공은 감소하면서 실용음악학과의 모집정원이 608명으로 5년 사이 170명이 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표 IV-3> 강원지역 클래식전공과 실용음악학과 현황 및 입학정원

대학 명	2006			2011			2016		
	음악	실용	정원	음악	실용	정원	음악	실용	정원
강릉원주대(강릉대)	0		45	0		50	0		38
강원대	0		36	0		40	0		33
가톨릭관동대	0	0	71	0	0	47		0	64
총 합계	3	1		3	1		2	1	

자료출처: '16'학원 대학입시자료집

강원지역에서 <강릉대학교>는 2007년에 <원주대학교>와 통합하였으며, <관동대학교>는 2014년 <가톨릭관동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6년에는 예술디자인대학 음악과에 보컬·뮤지컬전공과 미디어작곡전공이 있었으나 2011년에는 스포츠예술대학으로 속하여 있다가 현재는 2015년에 방송문화예술대학 실용음악과의 이름으로 개설되었다.

<표 IV-4> 충북지역 클래식전공과 실용음악학과 현황 및 입학정원

대학 명	2006			2011			2016		
	음악	실용	정원	음악	실용	정원	음악	실용	정원
서원대	0		93	0	0	31		0	25
우석대	2014년 공연예술뮤지컬학과 신설							0	36
아국교통대(충주대)	0		20	0		27	0		28
총 합계	2	0		2	1		1	2	

자료출처: '16'학원 대학입시자료집

충북지역의 <서원대학교>는 2006년 예술학부 음악학과에서 2011년에 작곡전공분야에 실용음악전공과 클래식전공을 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 공연영상학부에 실용음악과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2015년 휴먼서비스대학 안에 실용음악학과를 설치하였다. <우석대학교>는 전북지역에 국악과만 개설되었다가 2014년 충북지역에 공연예술뮤지컬학과라는 이름으로 학과를 개설하였다.

<표 IV-5> 충남지역 클래식전공과 실용음악학과 현황 및 입학정원

대학명	2006			2011			2016		
	음악	실용	정원	음악	실용	정원	음악	실용	정원
나사렛대	0		55	0	0	38/20	0	0	30/20
남서울대	2016년 신설							0	20
대주대	2009년 개설				0	25		0	21
목원대	0	0	143/50	0	0	110/73	0	0	76/51
배재대	0		74	0	0	64	0	0	25/30
백스대(취안대)	0	0	136/15	0	0	182	0	0	196
서남대	진북지역에 위치							0	45
성민대	2009년 신설				0	103	미교		
세한대(대불대)	전 대불대학교 명칭으로 전남에 위치							0	70
중부대	0	0	64/32	0	0	73	경기지역으로 C 전		
청운대		0	50		0	50		0	51
충남대	0		75	0		73	0		69
침례신학대	0		65	0		65	0		65
아사대	0	0	16/30		0	40		0	25
호서대	0	0	48/30	0	0	61/45	0	0	30/36
총합계	9	6		8	10		7	11	

자료출처: '11' 학원 대학입시자료집

충남지역의 <나사렛대학교>는 2006년 음악학부만 설치되어 운영되다 2010년 음악학부안에 실용음악전공을 개설하였다. <남서울대학교>는

2016년 실용음악학과를 신설하였다. <백석대학교>는 천안대학교에서 2006년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독교실용음악으로 개설되었다가 2015년에 실용음악과로 개편되었다. <서남대학교>는 전북과 충남에 캠퍼스를 두고 있었으나, 전북에 위치한 음악과는 이번년도 폐과되면서 국악과를 신설하였고 충남캠퍼스에 2016년 실용음악학과를 신설하였다. <대불대학교>는 2012년 <세한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2013년에 충남에 캠퍼스를 개교하였다. 기존에 있던 음악과는 폐과 되었으며 실용음악학과와 뮤지컬학과만 개설되어있다. <중부대학교>는 충남에 본 캠퍼스가 있는 학교로 2006년에 음악과와 실용음악과 모두 운영 중이었으며 2010년 음악학과에서 뮤지컬음악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5년 경기캠퍼스가 생기면서 실용음악과를 경기도로 이전하였다. 충남캠퍼스에 위치한 뮤지컬음악학과는 2016년부터 모집이 중단 되어있는 상태이다.

<대전대학교>는 2009년 무용학과에서 방송공연예술학과로 전환하면서 실용음악학과 전공을 개설하였다. <배재대학교>는 2006년 음악학부에 클래식기타 전공으로 1명의 인원만 선발하여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으나 2011년에는 미디어음악전공과 뮤지컬전공이 개설되었다. 2016년에는 음악학부가 아닌 실용음악과와 피아노과만 유지되고 있다. <충남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실용음악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입학 정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서대학교>는 2006년 영상음악과와 음악과로 운영되다가 2009년 실용음악과로 통합하면서 현재는 실용음악전공만 남아있다.

폐교된 학교로는 <성민대학교>가 개교 10년 만에 문을 닫았으며 실용음악과는 2009년에 신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지역은 2006년 10개교 중 6개교에서 실용음악학과를 운영 중이었다. 2011년에는 12개교에서 10개교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현재는 13개교 중 11개교에서 실용음악학과

가 운영되고 있다.

<표 IV-6> 전북지역 클래식전공과 실용음악학과 연황 및 입학정원

대학명	2006			2011			2016		
	음악	실용	정원	음악	실용	정원	음악	실용	정원
군산대	0		41	0		36	0		32
서남대	0		58	0		21	충남으로 이전		
예원예술대		0	80	0	0	78	2014년 경기캠퍼스로 C 전		
우석대	0		30	0		25	2015학년부터 모집중지		
원광대	0		57	0		45	0		37
전북대	0		40	0		38	0		29
전수대	0		65	0		49	0		40
한일장신대	0		40	0	0	20/15	0	0	15/17
호원대(산업대)		0	91		0	128		0	120
총합계	7	2		8	3		5	2	

자료출처: 한국학원 대학입시자료집

전북지역의 9개 대학을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 이후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확인되어진다. <서남대학교>는 남원캠퍼스 음악과가 이번 2016년 폐과되면서 국악과를 신설하였다. <예원예술대학교>가 2006년에 선발한 80명의 정원은 공연음악학부에 코미디전공, 실용음악전공, 음악전공을 설치하여 구분하지 않고 선발한 인원 수이다. <우석대학교>는 전북과 충북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전북지역에는 국악과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정원을 선발하지 않고 충북에 공연예술뮤지컬학과 2014년 신설하였다. <한일장신대학교>는 2006년에는 음악과만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음악과와 실용음악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업대학교인 <호원대학교>는 방송예술학에 방송연예학과와 대중음악전공을 운영하였다. 2011년에 방송연예학부에 뮤지컬전공과 실용음악학부로 개설하였다.

전북지역은 2006년 9개교 중 2개교에서 실용음악학과를 운영하였다. 2011년에는 3개교로 증가하였으나 예원예술대학교가 경기캠퍼스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3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실용음악학과가 개설된 비중은 적으며 클래식음악전공은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3개교가 폐과되거나 모집이 중단되었다.

<표 IV-7> 전남지역 클래식전공과 실용음악학과 현황 및 입학정원

대학명	2006			2011			2016		
	음악	실용	정원	음악	실용	정원	음악	실용	정원
광주대	0		57	0	0	22/2	0	0	15/20
경수대	0		88	0	0	40	0	0	31
남부대	0		50	0	0	26	0	0	30
농산대		0	40		0	25		0	58
명신대	0		25	0		28	2012년 폐교		
목포대	0		40	0		36	0		37
세진대(대남대)	0	0	60/100	0	0	30/149	충남으로 이전		
순천대	0		33	0		29	0		26
초당대	0		49	0		27		0	25
진북대	0		84	0		75	0		62
호남신학대	0		50	0	0	50	0	0	50
총합계	10	2		10	6		7	6	

자료출처: '14학년도 대학입시자료집

전남지역의 <세한대학교>는 전남캠퍼스에는 현재 전통연희학과만 개설되어 있다. 실용음악과는 충남지역에 개설되어 있다. <초당대학교>는 2012년부터 산업대학교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까지 음악학과로 운영되다 2011년도부터 실용음악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용음악전공만 운영중이다. 2011년 <광신대학교>는 음악학과 안에 실용음악전공 2명을 뽑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실용음악학과를 개설하였으며 모집

정원도 10배로 확충하였다. <광주대학교>는 2010년도부터 음악학과 안에 실용음악 보컬전공을 개설하여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남부대학교>는 2006년 음악학부에 음악전공과 한국음악전공으로 개설되었다가 2007년부터 실용음악전공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호남신학대학교>도 2007년부터 음악학과에 기독교 실용음악전공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2006년 11개교의 음악대학 중 2개교에서만 실용음악학과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6년 9개교의 음악대학 중 6개교에서 실용음악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표 IV-8> 경북지역 클래식전공과 실용음악학과 현황 입학정원

대학명	2006			2011			2016		
	음악	실용	총원	음악	실용	총원	음악	실용	총원
경북대	0		70	0		62	0		56
거명대	0	0	181/50	0	0	181/37	0	0	173/70
경수대	2014년 신설							0	30
김천대	2009년 승격			0	0	30	0	0	35
대구가톨릭대	0		182	0	0	129/4	0	0	102/30
대구예술대	0	0	67/56	0	0	67/57	0	0	117
대신대	0	0	50	0	0	50	0	0	38
인봉대	0		36	0		36	0		29
영남대	0		142	0		138	0		126
총합계	7	3		8	5		8	6	

자료출처: '11' 학원 대학입시자료집

경북지역의 <경주대학교>는 2014년에 실용음악공연학과를 신설하였다. <김천대학교>는 일반대학교로 승격하기 전 김천대학 이라는 교명으로 음악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9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였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음악대학에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작곡과, 종교음

악과로 운영하다 2008학년도부터 작곡전공 이론전공, 실용음악작곡전공 3개 파트의 전공별로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작곡·실용음악과로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다.

경북지역은 2006년 7개교 중 3개교에서 실용음악학과를 운영하였다. 2011년에는 8개교에서 5개교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9개교 중 6개교에서 실용음악학과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IV-9> 경남지역 클래식전공과 실용음악학과 현황 입학정원

대학명	2006			2011			2016			
	음악	실용	정원	음악	실용	정원	음악	실용	정원	
경상대	0	0	91	0		67	0		90	
고신대	0	0	73/6	0	0	80	0	0	20/14	
농아대	0	0	75	0	0	60/26	0	0	35/40	
농오대	0	0	72/10	0	0	54/19	0	0	41/19	
부산대	0		67	0		66	0		62	
신라대	0		59	0	0	57	0	0	45	
영산대	2006년 신설				0	31		0	26	
울산대	0		75	0		64	0		60	
인제대	0		53	0		45	0		43	
창신대	2013년 일반대학으로 승격							0		30
칠우대	0		44	0		42	0		41	
아곡국제대	2007년 신설			0		30		0	30	
총합계	9	4		10	5		10	6		

자료출처: 111학원 대학입시자료집

경남지역은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를 포함한다. <고신대학교>는 2006년 교회음악과에 성악전공, 오르간전공, 작곡전공, 실용교회음악이라는 명칭으로 실용음악의 형태를 띤 전공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2006년 실용교

회음악의 전공은 6명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에는 교회음악과에 성악실용보컬전공, 오르간전공, 작곡실용전공, 실용악기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16년 입시자료집에는 음악과에 피아노전공, 성악전공, 관현악 전공 그리고 실용음악전공으로 분류되어 자리매김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인제대학교>와 <창원대학교>는 음악과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학교 모두 2006년 이후부터 인원이 감축되고 있다. <한국국제대학교>는 2007년부터 야간에 음악학부를 운영하다 2012년부터 주간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2014년에는 음악학과에서 음악공연학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창신대학교>의 음악학과는 전문대학으로 개설 되었을 때부터 운영되던 학과이며 2013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였다. 경남지역은 9개교의 음악대학 중 4개교에서 실용음악학과를 운영하였다. 2011년에는 음악대학 11개교 중 5개교에서 실용음악학과를 운영하였다. 2016년에는 음악대학 12개교 중에서 절반의 대학이 실용음악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표 IV-10> 제주 지역 클래식전공과 실용음악학과 현황 및 입학정원

대학 명	2006			2011			2016		
	음악	실용	정원	음악	실용	정원	음악	실용	정원
제주대	0		36	0		36	0		36
제주국제대	2016년 신설							0	55
총 합계	1	0		1	0		1	1	

자료출처: '11학년도 대학입시자료집

제주지역의 <제주대학교>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정원의 변화가 없으며 제주국제대학교는 2016년에 실용예술학부 대중음악 전공을 신설한 학교이다. 실용예술학부의 전체 모집인원은 80명이나 그 중 대중음악전공의 정원이 55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대중음악 전공이 학과인원 확보

에 있어서 중요한 전공이며 대중음악을 전공을 선호하는 학생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다. 음악대학과 실용음악학과 개설 현황 분석

서울·경기지역은 2006년 37개 음악대학 중 경기대를 제외한 36개 대학이 클래식음악전공 학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즉 전체 음악대학 중 97%가 클래식음악 분야이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클래식음악전공 학과가 계속 유지되면서 실용음악학과는 2006년 5개교에서 2016년에는 16개교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입학정원을 보면 2006년 클래식음악전공자를 3058명, 실용음악 전공자는 150명을 모집하였다. 2011년에는 클래식음악전공자가 감소하고 실용음악 전공자가 436명으로 2006년보다 3배 가까이 정원이 확충되었다. 2016년에도 클래식음악전공은 감소하면서 실용음악학과의 모집정원이 608명으로 5년 사이 170명이 넘게 증가하였다.

강원지역은 2006년부터 1개교에서만 실용음악학과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충북지역은 2006년 당시 실용음악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으나 현재는 3개의 학교 중 2개의 학교에서 실용음악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충남지역은 2006년 실용음악학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2016년 85%로 증가하였으며 2개교를 제외한 11개교의 음악대학에서 실용음악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예원예술대학교에 개설된 실용음악학과가 경기캠퍼스로 이전하면서 클래식음악전공과 실용음악학과 모두 감소되었다. 전남지역은 클래식음악 전공이 10년 사이 3개교가 줄어들고 2006년 2개교에만 운영하던 실용음악학과가 현재는 6개교로 3배 증가하였다. 경북지역과 경남지역은 클래식음악전공 학과의 개설 수에 큰 변동 없이 실용음악학과를 증설하는 양상을 보였다.

## 2. 인터뷰 결과

실용음악학과의 발전에 대한 실증적인 답변을 듣고자 대학교수 2명과 고등학교 교사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및 분석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수 인터뷰

#### 1)현황

지방의 음악대학이 사라지거나 실용음악학과로 전과되는 현상과 실용음악학과의 대다수가 보컬 전공인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A 교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가 크다. 시대의 흐름이고 보컬전공이 많은 것은 방송 프로그램이 보컬 중심이기 때문에 효과를 보았다.

B 교수: 학교 경영상 수요가 많은 쪽으로 과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C, D 등급 평가를 받은 학교는 재정적 지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생이 많이 들어오는 학과를 육성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주목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컬 전공으로 몰리는 경향도 있고 단숨에 빛을 보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다. 한류가 음악을 상품화함으로써 K-POP에 나도 모르게 휩쓸리게 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파악하여 진지하게 상담해줄 상담자나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몰리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인터뷰 결과로 보았을 때 실용음악학과의 대다수가 보컬 전공인 것은 보컬 위주의 오디션프로그램과 학생들이 무대에서 주목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진로 결정을 앞둔 청소년들이 사회의 유행 흐름이나 현상에 선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인기 요인

다음은 클래식음악 대비 대중음악이 인기 있는 이유의 답변이다.

- A 교수: 클래식음악은 선정적이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자극하지 못한다. 클래식음악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게 알면 알수록 들리는 음악이다. 반면, 대중음악은 듣는 순간 와닿고 강한 비트로 흥미롭고 가사가 있어 대중과의 소통이 쉽다.
- B 교수: 클래식 음악은 어린 시절부터 배워야하고 배우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 실용음악에 비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

위의 답변으로 보아 대중음악의 인기 있는 이유는 강한비트가 자극적이며 가사가 있어서 공감하기 쉽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클래식음악은 유년시절부터 해야 하고 비용 소비가 크다는 이미지가 있다. 클래식에 대한 이런 선입견은 실용음악의 장점을 더 부각 시키는 요소로 볼 수 있다.

## 3) 전망 및 전략

클래식음악과 실용음악학과의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 A 교수: 현재 실용음악과에 학생이 몰리고 있지만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클래식음악이 부딪친 문제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클래식음악 전공자들은 클래식음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세미클래식처럼 심포니를 짧게 편하거나 재편성하여 음악 애호가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대중에게 가까운 음악이 되어야 한다. 실용음악은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기초를 탄탄하고 대중음악 분야만이 아닌 인디, 재즈 등 다른 음악 장르도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B 교수: 구조조정과 학과 설치에 개입하여야 한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입시 시험을 볼 때 실기의 경우 1,2분을 듣고 판단을 하는데 변별력이 없으며 올바른 선발이 되지 못한다.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해선 안 될 학생을 수용해선 안 된다. 실용음악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대중문화가 산업화 되면서 성장해 나가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답변으로 보았을 때 실용음악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론적인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쌓고, 대중음악장르가 아닌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재정적 위기 극복을 위한 지나친 학생 수용은 수년 후 큰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

## 나. 교사 인터뷰

고등학교에서 실용음악을 지도하는 교사를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 질문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현황

학생들이 실용음악을 전공으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 요소와 클래식음악이 줄어들고 실용음악이 성장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C 교사: 클래식음악은 들을 기회가 적고 접근성이 어렵다. 종교의 영향도 큰 것 같다. 교회에서 찬양 밴드를 하다가 온 학생이 꽤 있다. 클래식음악이 지나온 길을 실용음악이 지나오는 것 같다.

D 교사: 예전에는 보컬위주의 실용음악으로 유명한 스타나 오디션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보컬 중심이 아닌 인디밴드나, 게임, 애니메이션 등 자기의 취미에 나오는 음악, 영화, 게임 등의 수익성을 보고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또 클래식 음악은 향유계층이 적다. 실용음악이 클래식음악을 대신 해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다.

위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시대의 흐름이 대중음악 중심으로 흐르고 있으며 실용음악은 접근성의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방송(TV,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모든 연령층이 대중음악을 접하게 된 것은 실용음악이 기존의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보다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게 디딤돌 역할

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인기요인

클래식음악 보다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사에게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C 교사: 클래식은 재미없다가 아니라 대중음악처럼 클래식 음악을 재미있게 가르치면 학생들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클래식에 대해서 재미없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접근성이 힘들다. 예전에는 들려주는 음악이었지만 지금은 보여주는 음악여야 관심을 갖는다.

D 교사: 대중음악은 길거리, 음식점, TV, 영화, 게임 등 아이들이 즐기는 문화 속에 흐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 클래식음악이어서 멀리하고 지루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등에 의해서 클래식음악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갖을 계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클래식음악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요즘 시대는 빠르고 다채로운 리듬을 갖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음악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클래식 음악은 한 곡을 듣는데 시간 이 오래 걸리고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다.

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중음악은 소리뿐만 아니라 보는 재미를 제공한다. 또, 곡이 짧으며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클래식음악은 악장의 길이가 길어 지루하고 보는 재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3) 인식 변화

실용음악과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고등학교 교사에게 학부모의 인식 변화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 아래와 같다.

- C 교사: 인식이 굉장히 변화되었다. 학부모들이 실용음악과를 가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며 보컬 같은 경우 돈도 적게 들고 악기보다 시작 시간이 늦어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D 교사: 클래식 음악보다 실용음악을 전공 한다고 하면 더 반대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요즘은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추구하는 학부모가 많다. 오히려 어떤 학부모들은 클래식이 더 어렵지 않을까 실용음악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다. 아마 마스크업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 메이킹을 보고 우리 아이도 그러지 않을까? 저런 재능이 있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을 갖는 학부모님이 많다.

인터뷰결과 클래식음악전공보다 실용음악전공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시대의 흐름과 여러 가지 사회현상 그리고 대중매체 등의 영향으로 뮤지션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이 변화되었다. 가수라는 직업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생각하며 부모의 교육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실용음악학과 학생 만족도 조사

양적 증가를 이룬 실용음악학과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내용은 변인구성(4)에 대한 문항과, 학과 시설(5), 전공수업(5), 개인수업(5), 기타(6) 만족도로 총 5가지의 항목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가.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표 IV-11>와 같다. 학년별로는 1학년 155명, 2학년 104명, 3학년 94명 4학년 63명이 참여하였다. 학교 소재지에 따라서는 수도권 145명, 비수도권 271명으로 총416명 이다.

<표 IV-11> 연구대상자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
학년	1학년	45	110	155
	2학년	43	61	104
	3학년	34	60	94
	4학년	23	40	63
	전체	145	271	416

설문지 대상자의 전공을 살펴보면 재학생 416명 중 보컬전공이 172명으로 전체 학생 비중의 4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작곡전공이 24.2%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V-12>는 연구 대상자의 전공별 학생 수 이다.

<표 IV-12> 연구대상자의 전공

전공	학생 수
보컬	172
작곡	101
건반 / 피아노 / 재즈피아노	14 / 21 / 14
기타	36
베이스기타 / 일렉기타 / 관악	7 / 4 / 1
드럼	26
공연기획 / 예술경영	3 / 3
레코딩 / 미디 / 사운드아트 / 음향	3 / 2 / 6 / 3
총 합계	416

#### 나. 학과 시설현황에 관한 문항

학과 시설에 관하여 5가지 문항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표 IV-13> 학과시설 만족도

(단위: 명, %)

문항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음악직업이나 연습에 필요한 장비가 충분하다.	35 (8.4)	71 (17.1)	142 (34.1)	119 (28.6)	49 (11.8)
2	고장 난 장비 혹은 기기 능이 빨리 수리되는 편이다.	66 (15.9)	96 (23.1)	153 (36.8)	74 (17.8)	27 (6.5)
3	학과에 구비된 기기 등의 관리가 편소에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36 (8.7)	92 (22.1)	159 (38.2)	103 (24.8)	26 (6.3)
4	학과에 설치된 기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2 (2.9)	55 (13.4)	96 (23.1)	187 (45.0)	86 (20.7)
5	방음시설, 장비 등이 갖춰진 연습공간이 충분하다.	43 (10.3)	83 (20.0)	143 (34.4)	104 (25.0)	43 (10.3)

학과시설현황에 관한 설문내용 분석결과, 음악작업 및 연습에 필요한 장비와 공간의 충분함 여부에 대한 문항 1번과 방음시설과 장비 등이 갖춰진 연습공간의 충분함 여부 5번에서 각각 11.8% 와 10.3%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8.4% 와 10.3%로 나타났다. 보컬과 작곡 전공의 응답자 78%는 ‘대체로 그렇다’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미디어, 음향, 레코딩 전공의 응답자 74%는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발견된 점은, 4개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재즈피아노 전공자 14명의 답변 중 한 명(충남A 2016년 신설학과)만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문항 2번과 3번은 학과시설의 관리 실태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통이다’ 이하로 응답한 학생 수는 각각 75.8% 와 69%로 고장 난 기기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시설관리 면에서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학년별로 차이가 발생하였다. <표 IV-14>는 1번에 문항에 대한 학년별 응답이다.

<표 IV-14> 학년별 학과시설 만족도 1번 문항

(단위: 명, %)

질문 내용	답변 내용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음악작업이나 연습에 필요한 장비가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3.2)	11 (11.7)	9 (8.7)	13 (8.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 (15.9)	15 (16.0)	22 (21.2)	24 (15.5)
	보통이다	20 (31.7)	24 (25.5)	36 (34.6)	62 (40.0)
	대체로 그렇다	22 (34.9)	35 (37.2)	25 (24.0)	37 (23.9)
	매우 그렇다	9 (14.3)	9 (9.6)	12 (11.5)	19 (12.3)

<표 IV-14>에서 ‘대체로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에 응답한 학생만 본다면 4학년이 49.2%, 3학년 46.8%, 2학년 35.5% 1학년 36.2%이다. 1학년의 응답 중 본 설문문에 참여한 대학 중 1개교(충남A)가 2016년 신설된 학과로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8명,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학생이 9명이다. 이 학교 재학생의 응답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1학년은 9.8%를 차지한다. 이는 4학년의 만족도와 비교하면 약 5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표 IV-15>의 방음시설과 장비 등이 갖춰진 연습공간의 충분함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동일하게 학년별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15> 학년별 학과시설 만족도 5번 문항

(단위: 명, %)

질문 내용	답변 내용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방음시설, 장비 등이 갖춰진 연습공간이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7.9)	9 (9.6)	15 (14.4)	14 (9.0)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 (19.0)	14 (14.9)	22 (21.2)	35 (22.6)
	보통이다	15 (23.8)	33 (35.1)	37 (35.6)	58 (37.4)
	대체로 그렇다	20 (31.7)	28 (29.8)	21 (20.2)	35 (22.6)
	매우 그렇다	11 (17.5)	10 (10.6)	9 (8.7)	13 (8.4)

긍정의 응답을 한 4학년은 49.2%를 차지하며 3학년이 40.4%, 2학년이 28.9%, 1학년이 31%를 차지한다. 이 문항 역시 신설된 학과(충남A)에서 ‘대체로 그렇다’가 9명, ‘매우 그렇다’에 8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이 학교의 응답을 제외한다면 22.6%로 부정의 응답 35.7% 보다 13.1% 낮은 수치이다. 학과시설에 대하여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지만 위와 같은 결과로 보아 학년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다. 전공수업(클래스 수업)에 관한 문항

전공수업(클래스 수업)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을 5문항으로 나누어 질문 하였다. <표 IV-16>은 문항별 만족도 결과이다.

<표 IV-16> 전공수업 만족도

(단위: 명, %)

문항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수(강사)는 전공 지식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지도하신다.	6 (1.4)	19 (4.6)	68 (16.3)	145 (34.9)	173 (42.8)
2	강의실 위우수가 적절하여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10 (2.4)	45 (10.8)	118 (28.4)	171 (41.1)	72 (17.3)
3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11 (2.6)	70 (16.8)	167 (40.1)	112 (26.9)	56 (13.5)
4	내가 배우고 싶은 실용음악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	46 (11.1)	81 (19.5)	113 (27.2)	118 (28.4)	58 (13.9)
5	전공 수업은 나의 실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12 (2.9)	49 (11.8)	85 (20.4)	165 (39.7)	105 (25.2)

교수(강사)의 전문 지식에 관한 만족도는 긍정의 응답이 77.7%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부정의 응답을 한 25명 중 15명(60%)의 학생이 작곡전공으로 편중된 현상을 보였다. 최근 실용음악학

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강의실의 인원이 많아 수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예상외로 58.4%의 학생이 긍정으로 응답하였다.

전공수업이 실력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64.9%가 긍정의 응답을 하였고, ‘보통이다’가 20.4%를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전공수업에 관련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공수업에 관한 문항에서 지역 간의 차이가 드러났으며 <표 IV-17>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표이다.

<표 IV-1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수업 만족도

문항 내용	응답	수도권		비수도권	
		응답	퍼센트	응답	퍼센트
교수(강사)는 전공 지식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지도하신다.	전혀 그렇지 않다	18	12.4	7	2.6
	대체로 그렇지 않다	19	13.1	18	6.6
	보통이다	29	20.0	25	9.2
	대체로 그렇다	40	27.6	77	28.4
	매우 그렇지 않다	39	26.9	144	53.1
	총합계	145	100.0	271	100.0
강의실 인원수가 적절하여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	9.7	1	0.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6	11.0	17	6.3
	보통이다	26	17.9	29	10.7
	대체로 그렇다	48	33.1	81	29.9
	매우 그렇지 않다	41	28.3	143	52.8
	총합계	145	100.0	271	100.0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8.3	1	0.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4	9.7	6	2.2
	보통이다	28	19.3	45	16.6
	대체로 그렇다	47	32.4	80	29.5
	매우 그렇지 않다	44	30.3	133	51.3
	총합계	145	100.0	271	100.0
내가 배우고 싶은 실용음악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9	13.1	1	0.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4	9.7	15	5.5
	보통이다	36	24.8	55	20.3
	대체로 그렇다	45	31.0	77	28.4
	매우 그렇다	31	21.4	123	45.4
	총합계	145	100.0	271	100.0

문항 내용	응답	수도권		비수도권	
		인원	퍼센트	인원	퍼센트
전공 수업은 나의 실력 향 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2.1	1	0.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7	11.7	21	7.7
	보통이다	54	37.2	37	13.7
	대체로 그렇다	34	23.4	79	29.2
	매우 그렇다	37	25.5	133	49.1
	총합계	145	100.0	271	100.0

<표 IV-17>을 보면 전공수업 만족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수(강사)의 전문지식에 대하여 묻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에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2배 높게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의실 인원의 적절함을 묻는 문항에서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이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부정의 응답에 비수도권은 0.4%의 응답률을 보였고 수도권에서는 9.7%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 다양한 교구의 활용과 배우고 싶은 수업의 개설 여부, 전공 수업을 통한 실력 향상의 문항에서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라. 개인수업(1:1레슨)에 관한 문항

개인레슨(1:1레슨)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을 5문항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표 IV-18>은 문항별 만족도 결과이다.

<표 IV-18> 개인수업 만족도

(단위: 명, %)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수(강사)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지도하신다.	25 (6.0)	37 (8.9)	54 (13.0)	117 (28.1)	183 (44.0)
2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15 (3.6)	33 (8.2)	55 (13.2)	129 (31.0)	184 (44.2)

비 예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개인 레슨은 나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12 (2.9)	49 (11.8)	85 (20.4)	165 (39.7)	105 (25.2)
4	레슨을 통해서 내 전공분야에 더욱 흥미가 생겼다.	20 (4.8)	29 (7.0)	91 (21.9)	122 (29.3)	154 (37.0)
5	레슨 시간이 잘 지켜지는 편이다.	4 (1.0)	38 (9.1)	91 (21.9)	113 (27.2)	170 (40.9)

개인레슨에 관한 문항에서 교수(강사)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지도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72.1%가 긍정의 응답을 하였으며 부정의 응답을 한 14.9%로 보다 약 5배정도 차이를 보였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도 75.2 %로 긍정의 응답이 부정의 응답을 앞섰다.

전반적으로 긍정을 표한 학생이 많았다. 주목해야하는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만족도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19>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인수업 만족도

문항 내용	응답	수도권		비수도권	
		응답	퍼센트(%)	응답	퍼센트(%)
교수(강사)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지도하신다.	전혀그렇지않다	18	12.4	7	2.6
	대체로 그렇지 않다	19	13.1	18	6.6
	보통이다	29	20.0	25	9.2
	대체로 그렇다	40	27.6	77	28.4
	매우 그렇다	39	26.9	144	53.1
	총합계	145	100.0	271	100.0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전혀그렇지 않다	14	9.7	1	0.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6	11.0	17	6.3
	보통이다	26	17.9	29	10.7
	대체로 그렇다	48	33.1	81	29.9
	매우 그렇다	41	28.3	143	52.8
	총합계	145	100.0	271	100.0
개인레슨은 나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8.3	1	0.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4	9.7	6	2.2
	보통이다	28	19.3	45	16.6
	대체로 그렇다	47	32.4	80	29.5
	매우 그렇다	44	30.3	139	51.3
	총합계	145	100.0	271	100.0

문항 내용	응답	수도권		비수도권	
		응답	퍼센트(%)	응답	퍼센트(%)
레슨을 통해서 내 전공분야에 더욱 흥미가 생겼다.	전혀 그렇지 않다	19	13.1	1	0.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4	9.7	15	5.5
	보통이다	36	24.8	55	20.3
	대체로 그렇다	45	31.0	77	28.4
	매우 그렇다	31	21.4	123	45.4
	총합계	145	100.0	271	100.0
레슨 시간이 잘 지켜지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2.1	1	0.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7	11.7	21	7.7
	보통이다	54	37.2	37	13.7
	대체로 그렇다	34	23.4	79	29.2
	매우 그렇다	37	25.5	133	49.1
	총합계	145	100.0	271	100.0

개인 교수(강사)의 전문성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지 묻는 문항에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약 2배정도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의 문항에서도 전체적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마. 기타 문항

기타 문항에서는 학과의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추가로 질문하였으며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IV-20> 기타 만족도 문항

(단위: 명, %)

부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과 입학 후 실용음악에 더 흥미를 느낀다.	27 (6.5)	40 (9.6)	140 (33.7)	121 (29.1)	88 (21.2)
2	학과 입학 후 전공 실력이 향상되었다.	19 (4.6)	47 (11.3)	119 (28.6)	151 (36.3)	80 (19.2)
3	친한 후배에게 우리 학과를 추천할 수 있다.	39 (9.4)	68 (16.3)	155 (37.3)	102 (24.5)	52 (12.5)
4	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하기 전 기대했던 교육과 일치 한다.	47 (11.3)	113 (28.4)	132 (31.7)	90 (21.6)	29 (7.0)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주히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실용음악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루0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	12 (2.9)	35 (8.4)	161 (39.7)	152 (36.5)	56 (13.5)
6	실용음악을 전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용음악과에 진학하여 학교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70 (16.8)	75 (18.0)	165 (39.7)	83 (20.0)	23 (5.5)

학과 입학 후 실용음악에 더 흥미를 느끼는지에 대한 여부와 학과 입학 후 전공 실력이 향상되었는지 묻는 문항에서 긍정의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과를 추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의 응답이 37%로 ‘보통이다’와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4번 문항에서 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하기 전 기대했던 교육과 일치하는지의 질문에 부정의 응답이 39.7%로 긍정의 응답 28.6%로 보다 앞섰다. 부정의 응답자 중 작곡전공자의 응답 수는 61명으로 전체 작곡전공 응답자(101명)의 60.4%를 나타내어 특정 전공의 교육 컬리큘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6번 문항의 경우, 실용음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실용음악학과에 진학하여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긍정적 답변은 25.5%의 저조한 비율을 나타내어 우리나라 실용음악교육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질(質)적 약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학령인구감소와 대학구조조정정책으로 인하여 예술대학은 입지가 줄어들고 통폐합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실용음악학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학과개설 수가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클래식음악전공과 실용음악학과의 개설 현황을 비교하여 실용음악학과의 성장을 증명하고 실용음악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시설, 전공 수업, 개인 레슨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클래식음악전공과 실용음악학과의 개설 현황을 5년 단위로 조사하였으며, 학교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실용음악학과의 성장요인을 알아보고, 전국의 실용음악학과 중 10개교를 대상으로 재학생 41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클래식음악전공과 실용음악학과의 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경기지역이 가장 많이 실용음악학과를 개설하였다. 2006년 5개교 개설되어 있던 실용음악학과는 2016년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모집정원에서는 2006년 클래식음악전공자를 3058명, 실용음악 전공자 150명에서 2011년에 클래식음악전공자가 감소하는 반면 실용음악 전공자는 436명으로 2006년보다 3배 가까이 정원이 확충되었다. 2016년에도 클래식음악전공은 감소하면서 실용음악학과의 모집정원이 608명으로 5년 사이 170명이 넘게 증가하였다. 둘째, 충남지역은 2006년 6개교에 개설된 실용음악학과가 10년 후 11개교로 증가하였으며, 충남지역의 음악대학 2곳을 제외한 모든 음악대학에서 실용음악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전북지역은 클래식음악전공과 실용음악학과 모두 개설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넷째, 경북지역과 경남지역은 클래식음악전공 학과의 개설 수에 큰 변동 없이 실용음악학과를 증설하는 양상을 보였다.

실용음악학과의 성장요인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첫째, 오디션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무대에서 주목 받고 싶은 심리로 인해 실용음악학과에 많은 지원자가 발생하였다. 둘째, 수요로 인한 학과개설수가 증가하였다. 셋째, 접근성이 좋아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어 클래식음악과는 다르게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넷째, 가수직업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자녀들의 실용음악학과 진학의 걸림돌이 아닌 서포터가 되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실용음악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과 만족도 조사에서 학과시설 및 장비의 충분성에 대하여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으나 일부 소규모 전공(미디, 레코딩 등)자는 부정적 반응을 보여 불균형적인 만족도를 보였고, 시설 보수 및 관리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부정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수업과 1:1개인수업에 관련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특정전공자들은 현재의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실용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을 교육하는 대학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과를 개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집중되면서 학과수요로 인한 실용음악학과 개설이 보여 졌으나 지방의 경우 재정적 목적으로 기타 비인기 학과를 통폐합하고 실용음악학과를 신설한 학교들이 많이 늘어났다. 대학은 지나치게 많은 실용음악학과를 개설했으며 마치 유행이 끝나가듯 문을 닫는 실용음악학과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대학의 학과 개설에 개입하여 국가적 손실을 미리 예방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과별 시설장비 관리 규정을 재정, 정비하고 전문가의 주기적인 보수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외부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실기연습을 보장 해주어야 한다. 무대에서의 3분은 무대 전 수백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학과의 시설,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고장 난 장비들이 제때에 수리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습득능력은 저하될 것이고 실용음악분야 인재양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셋째, 실용음악의 보다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정부산하 교육청 혹은 관련 단체에서 진로상담자와 같은 인력을 투입 해주어야 한다. 실용음악에 대해 관심이 없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서 주위 환경에 휘둘려 자청하지 않은 실용음악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다면 지금처럼 실용음악, 특히 보컬전공의 수백대일에 달하는 경쟁률 거품을 보다 진정성 있는 경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덕원(2015). **10대를 위한 미디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동규(2008). 국공립 대학 통·폐합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2012). 실용음악 교육의 실태 비교 분석 및 발전방향.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2006). **한국의 청년 대중음악 문화**. 파주: 한국학술정보.
- 김윤태, 박준흠(2012). **대중음악 SOUND vol.5**. 한국대중음악 엔터테인먼트산업. 도서출판 선.
- 김창남(2012). **대중음악의 이해**. 파주: 한올아카데미.
- 김도일(2005). **소리의 문화사 축음기에서 MP3까지**. 서울: 살림출판사.
- 김학선(2012). **K·POP 세계를 홀리다**. 서울: 을유문화사.
- 김현진(2014). 전국 음악관련 대학교의 지역별, 과별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훈호(2014). 대학 재정지원 정책과 대학의 재정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선(2015). **2016학년도 대학입시자료집**. 서울: 디지털대성.
- 나민주(2008). **시장·정부·대학 대학재정지원정책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 노하영(2016).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뮤직 비즈니스 관련 학제 시스템 현황 연구 : 관련 전공 대학·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롱허스트, 브라이언(1999). **대중음악과 사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박 원(1995). “대학의 학과 통폐합과 계열화 추진을 위한 제언”, **대학교육**.74. 87-93.
- 박규원(2013). “한국 문화산업의 발달에 있어 대중음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술대회논문집**. 2013(11). 71-75.
- 박선민(2015). **대중가요 리메이크와 복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양우, 이유리(2013). “한국 대중음악산업의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28(1). 257-285.

- 박재록(2015). **뮤직테크놀로지의 이해**. 파주: 음악세계.
- 박철홍(2002). “실용음악의 현황과 전망”, **음악과민족**. 23. 63-93.
- 박철홍(2012). “실용음악 교육기관의 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 **음악과민족**. 44. 189-218.
- 변정민(2014). “대중음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연구”, **이벤트학연구**. 12(3). 7-22.
- 서명준(2014). **미디어사회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서커, 로이(2012). **대중음악사전**. 서울: 한나래.
- 손 옥(2003). 실용음악학과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계열(2011). 학제에 따른 실용음악학과 비교연구: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의 설립역사, 입시요강, 교과과정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석(2005).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서울: 학지사.
- 신현준(2002). **글로벌, 로컬, 한국의 음악 산업**. 서울: 한나래.
- 심두보(2013). “K-POP에 관한 소고”, **사회과교육**. 52(2). 13-28.
- 안병영(2015). **5.31 교육개혁 그리고 20년: 한국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 다산.
- 안용성(2007). 국내·외 실용음악과교과과정연구: 실용음악관련학과의 커리큘럼비교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재영(2011). “케이팝의 글로벌 전략과 혼종정체성: ‘포스트-한류’ 시대 케이팝의 사회문화적 지형에 관한 소고”, **음악융용연구**. 4(1). 19-37.
- 오찬호(2013). **대학 경영,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의 한국 대학에 던지는 ‘대학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알렙.
- 원재웅(2013). “실용음악 보컬 교육의 허와 실: 대학 실용음악과의 교육을 중심으로”, **대중음악**. 1(12). 78-98.
- 윤수인(2003). **21세기 대학 어디로 갈 것인가**.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 이동연(2011). **아이들- H.O.T에서 소녀시대까지, 아이들 문화 보고서**. 서울: 이매진
- 이상훈(2015). **대학의 메타모포시스 한국대학의 구조개혁과 특성화**. 고양: 지식공감.

- 이선호(2015). “K-POP 주류에 의한 한국대중음악산업의 변화에 따른 실용음악교육 개선에 대한 소고”, **문화예술교육연구**. 10(6). 109.
- 이수완(2014). **대중음악 입문: 문화연구와 만나는 대중음악**.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 이수완(2016). “대중문화와 미학: K-POP, Korean과 Pop Music의 기묘한 만남”, **인문논총**. 73(1). 77-103.
- 이에스더(2010). “뮤직프로덕션과의 운영 실태와 미래 전망”, **음악교육공학**. 10(1). 255-274.
- 이에스더(2012). **대중음악과 문화**.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이정선(2010). 韓國 大學 實用音樂教育制度의 發展過程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환(2013). “한국 대학의 음악과 명칭에 관한 연구: 대학의 실용음악과 명칭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2). 6119-6124.
- 장유정, 서병기(2015). **한국 대중음악사 개론**. 서울: 성안당.
- 장혜원(2015). 국내 대중음악의 문화적 정당화 과정에 대한 연구: ‘실용음악’의 대학제도 진입과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일서(2013).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 **대중음악**. 1(11). 109-168.
- 정진웅(2014). “신자유주의적 호명, 저항, 심층놀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문화정치적 함의”, **한국문화인류학**. 47(2). 87-130.
- 조인희(2013). “한류문화에 영향을 미친 YouTube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7(2). 9-18
- 조인희, 손준혁(2011). “오디션 프로그램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슈퍼스타 K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5(3). 34-40
- 최경서(2014).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고등교육기관 통·폐합 사례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상덕(2008).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은경(2014). **사실적 텔레비전과 방송편성 문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진영(2005). **2006학년도 대학입시자료집**. 서울: 디지털대성.
- 최진영(2010). **2011학년도 대학입시자료집**. 서울: 디지털대성.
- 프리스, 사이먼(2005). **케임브리지 대중음악의 이해**. 서울: 한나래.
- 하상욱(2014). 실용음악교육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 : 국내 유명 실용음악과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영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승희(2013). 국내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 분석 및 인식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현숙(2013). “K-POP의 세계 대중음악 진출에 대한 담론”, **음악교육공학**. 17(1). 187-203.

<그 외 자료>

- 교육부(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발표. 교육개혁 보도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 통계청 <http://kostat.go.kr>
-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www.sen.go.kr>
- OECD <http://www.oecd.org/>
- 연합뉴스 (2016.04.10.) ‘공무원 시험 열풍’…민간보다 처우 좋은데 “목매는건 당연”.<http://www.yonhapnews.co.kr> 접속일자: 2016.04.20

<대학 홈페이지>

- 가천대학교 <http://admission.gachon.ac.kr/kyungwon/>
- 가톨릭대학교 <http://ipsi.catholic.ac.kr/main/index.asp>
- 가톨릭관동대학교 <http://ipsi.cku.ac.kr/mbs/ipsi/index.jsp>
- 강남대학교 <http://admission.kangnam.ac.kr/>
- 강릉원주대학교 <https://ipsi.gwnu.ac.kr/mbs/ipsi/index.jsp>

강원대학교 <http://admission.kangwon.ac.kr/>  
경기대학교 <http://enter.kyonggi.ac.kr/>  
경북대학교 <http://ipsi1.knu.ac.kr/ipsi1/main/index.jsp>  
경성대학교 <http://cms1.ks.ac.kr/ipsi/Intro.do>  
경주대학교 <http://entrance.gu.ac.kr/index.do>  
경희대학교 <http://iphak.khu.ac.kr/main.do>  
계명대학교 <http://www.gokmu.ac.kr/>  
고신대학교 <http://dream.kosin.ac.kr/html/main/main.php>  
국민대학교 <http://admission.kookmin.ac.kr/>  
군산대학교 <http://iphak.kunsan.ac.kr/index.kunsan>  
그리스도대학교 <http://kcu.ac.kr/kcui/main?menuId=10>  
극동대학교 <http://ipsi.kdu.ac.kr/>  
김천대학교 <http://ibhak.gimcheon.ac.kr/>  
광신대학교 <http://www.kwangshin.ac.kr/ipsi/sub.asp?ksu=01010201>  
광주대학교 <http://iphak.gwangju.ac.kr/html/admission/>  
나사렛대학교 <http://www.kornu.ac.kr/>  
남부대학교 [http://ipsi.nambu.ac.kr/ipsi/sub80/sub80\\_15.asp](http://ipsi.nambu.ac.kr/ipsi/sub80/sub80_15.asp)  
남서울대학교 <http://www.namseoul.net/>  
단국대학교 <http://ipsi.dankook.ac.kr/jukjeon/onschedule/onsche.php>  
동덕여대 [http://ipsi.dongduk.ac.kr/contents/iphak/cor/jscommon\\_1.html](http://ipsi.dongduk.ac.kr/contents/iphak/cor/jscommon_1.html)  
동서대학교 <http://ipsi.dongseo.ac.kr/ipsi/>  
동아대학교 <http://ent.donga.ac.kr/admission/html/main/main.asp>  
동의대학교 <http://ipsi.deu.ac.kr/main/index.asp>  
동신대학교 <http://ipsi.dsu.ac.kr/>  
동양대학교 <http://ipsi.dyu.ac.kr/newsite2008/mojib/mojib02.asp>

대구가톨릭대학교 <http://ibsi.cu.ac.kr/main.php>  
대구예술대학교 <http://www.dgau.ac.kr/AdmissionLibrary/LBList.asp>  
대신대학교 <http://www.daeshin.ac.kr/admission/>  
대전대학교 <http://ipsi.dju.ac.kr/admission/html/main/main.asp>  
대진대학교 <http://admission.daejin.ac.kr/index.do>  
루터대학교 <http://admission.ltu.ac.kr/index.php?type=admission>  
명지대학교 [http://ipsi.mju.ac.kr/new\\_design/main.html](http://ipsi.mju.ac.kr/new_design/main.html)  
목원대학교 <http://enter.mokwon.ac.kr/new/html/main/main.html>  
목포대학교 <http://ipsi.mokpo.ac.kr/index.9is>  
배재대학교 <http://enter.pcu.ac.kr/index/>  
백석대학교 [http://ipsi.bu.ac.kr/ipsi\\_index.jsp](http://ipsi.bu.ac.kr/ipsi_index.jsp)  
부산대학교 <http://go.pusan.ac.kr/intro.asp>  
삼육대학교 <http://ipsi.syu.ac.kr/intro.html>  
상명대학교 <http://admission.smu.ac.kr/seoul/index.php>  
서경대학교 [http://go.skuniv.ac.kr/#mid=regular\\_admission\\_guid](http://go.skuniv.ac.kr/#mid=regular_admission_guid)  
서남대학교 <http://enter.seonam.ac.kr/>  
서울기독대학교 [http://www.scu.ac.kr/entrance/outline\\_2016\\_na.php](http://www.scu.ac.kr/entrance/outline_2016_na.php)  
서울대학교 <http://admission.snu.ac.kr/index.html>  
서울시립대학교 <http://admission.uos.ac.kr/iphak/main.do>  
서울신학대학교 [http://ipsi.stu.ac.kr/CmsHome/jungsi\\_01.eznic](http://ipsi.stu.ac.kr/CmsHome/jungsi_01.eznic)  
서울장신대학교 [http://www.sjs.ac.kr/admission/w\\_03ed/3100.php](http://www.sjs.ac.kr/admission/w_03ed/3100.php)  
서원대학교 <http://www.seowon.ac.kr/web/iphak/home>  
성결대학교 <http://ipsi.sungkyul.ac.kr/>  
성신여자대학교 <https://ipsi.sungshin.ac.kr:2016/>  
세종대학교 <http://ipsi.sejong.ac.kr/>

세한대학교 <http://iphak.sehan.ac.kr/iphak/main.do>  
수원대학교 <http://ipsi.suwon.ac.kr/>  
숙명여자대학교 <http://www.sookmyung.ac.kr/index.jsp>  
순천대학교 <http://iphak.scnu.ac.kr/web/iphak/home>  
신라대학교 <http://ipsi.silla.ac.kr/ipsi/>  
신한대학교 [http://ipsi.shinhan.ac.kr/entrance/notice/notice\\_list.php](http://ipsi.shinhan.ac.kr/entrance/notice/notice_list.php)  
안동대학교 <http://ipsi.andong.ac.kr/htm/main/main.php>  
안양대학교 <http://enter.anyang.ac.kr/>  
연세대학교 <http://www.yonsei.ac.kr/sc/index.jsp>  
영남대학교 <http://enter.yu.ac.kr/main.php>  
영산대학교 <http://ipsi.ysu.ac.kr/>  
예원예술대학교 <http://www.yewon.ac.kr/Admission/>  
용인대학교 <http://ipsi.yongin.ac.kr/>  
우석대학교 <http://www.woosuk.ac.kr/WoosukEntrance.do>  
울산대학교 <http://iphak.ulsan.ac.kr/main.do>  
원광대학교 <http://ipsi.wku.ac.kr/regular/guide/>  
이화여자대학교 <http://www.ewha.ac.kr/mbs/ewhagr/index.jsp>  
인제대학교 <http://iphak.inje.ac.kr/>  
인천대학교 <http://www.inu.ac.kr/mbs/home/mbs/ipsi/index.do>  
장로회신학대학교 <http://www.puts.ac.kr/main/>  
전남대학교 <http://www.jnu.ac.kr/jnumain.aspx>  
전북대학교 <http://enter.jbnu.ac.kr/>  
전주대학교 <http://www.jj.ac.kr/iphak/>  
제주국제대학교 [http://apply.jeju.ac.kr/Main/Bd/list.php?btable=ne\\_pds](http://apply.jeju.ac.kr/Main/Bd/list.php?btable=ne_pds)  
제주대학교 <http://ipsi.ysu.ac.kr/>

중부대학교 <http://www.joongbu.ac.kr/ipsi.do>  
중앙대학교 <https://admission.cau.ac.kr/>  
창신대학교 <http://admission.cs.ac.kr/guide/guide3.php>  
창원대학교 [http://ipsi.changwon.ac.kr/html/00\\_main/main.php](http://ipsi.changwon.ac.kr/html/00_main/main.php)  
청운대학교 <http://enter.chungwoon.ac.kr/>  
초당대학교 <http://ipsi.dsu.ac.kr/>  
충신대학교 <http://admission.chongshin.ac.kr/>  
추계예술대학교 <http://www.chugye.ac.kr/mbs/ipsi/>  
충남대학교 <http://ipsi.cnu.ac.kr/html/kr/>  
침례신학대학교 <http://ipsi.kbtus.ac.kr/>  
칼빈대학교 [http://www.calvin.ac.kr/ipsi\\_2012/c03/02.php](http://www.calvin.ac.kr/ipsi_2012/c03/02.php)  
평택대학교 <http://entrance.ptu.ac.kr/>  
한국교통대학교 <http://yes.ut.ac.kr/>  
한국국제대학교 <http://ipsi.iuk.ac.kr/main/index.php>  
한서대학교 <http://helper.hanseo.ac.kr/info/notice/list.php>  
한세대학교 <http://ipsi.hansei.ac.kr/>  
한양대학교 <http://iphak.hanyang.ac.kr/new/2015/main/main.html>  
한영신학대학교 <http://ipsi.hytu.ac.kr/html/index.php>  
한일장신대학교 [http://www.hanil.ac.kr/bbs/board.php?wr\\_table=ai110](http://www.hanil.ac.kr/bbs/board.php?wr_table=ai110)  
협성대학교 <http://iphak.uhs.ac.kr/>  
호남신학대학교 [http://ipsi.htus.ac.kr/board/board.php?b\\_id=ip\\_005](http://ipsi.htus.ac.kr/board/board.php?b_id=ip_005)  
호서대학교 <http://ipsi.hoseo.ac.kr/CmsHome/MainDefault.eznic>  
호원대학교 [http://www.howon.ac.kr/2015/\\_admission/](http://www.howon.ac.kr/2015/_admission/)  
KC대학교 <http://kcu.ac.kr/kcui/main?menuId=10>

# ABSTRACT

## A Study on the Status of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and Satisfaction Survey on Students in 4-year Universities

Nam Hee KIM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Current Korea universities are implementing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due to enhancement of educational qualitative levels by quantitativ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rapid decreases of school age populations. Resultantly, departments which focus on visual performance have been grown, and problems occur owing to indiscreet department merge between colleges of humanities and that of arts. On the other hand,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is widening its position to 4-year universities by exceeding professional universities actually while achieving growth thanks to development of media and popularity. This study aims at grouping improvement after deducing problems by looking into opening status and admission capacity of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having made breakthrough development and department of classic music major by region in contrast, and then executing a school satisfaction survey by objecting current students in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and carrying out a survey on school satisfaction.

In order to look for college of music status, department opening status of recent 10 years was analyzed by each 5- year unit, and interviews with relevant persons with schools were made to review factors that enabled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to be developed enormously, and then a satisfaction survey including department facilities, major course, private lessons was carried out to 416 students of nationwide 10 schools to grasp operational present situations of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As research results, operation was being made without changes besides a school of classic music major in Seoul, Gyeonggi Province area stopped recruitment recently (2015). On the other hand,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was increased three times from 5 schools to 16 ones during 10 years. In Chungnam and Jeonnam area,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was expanded while department of classic music major was decreased.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showed expanding aspects without large changes in the number of opening department of classic music major in Gyeongbuk and Gyeongnam area.

As a result of checking on the development factor of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through interviews with relevant persons in school, a fact could be known that a lot of applicants to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occurred owing to students' psychology of hoping to get attention in stages together with audition programs, and parents were enlarged by becoming supporters of their children because awareness of the old generation has been changed on the job 'singer.'

Most positive answers about sufficiency of department facilities and equipment as a result of executing satisfaction on school facilities and major course, personal lesson etc by objecting 416 current students of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However, in management parts, negative voices were higher in common. In satisfaction survey related to major course, and 1:1 private lessons, most of them did positive responses, but there was differences by region, and a part of specific

majors showed negative responses to current educational curriculum.

For college of music in our country, it is getting hard to sustain the department unlike the past. In contrast,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has continuous development possibility indebted to future development of pop music. Nonetheless, it would fall into congestion like classic music if not having deeper theoretical backup and creativity. Constant efforts and improvement of relevant persons such as university officials or music majors are encouraged to make future leap of Korea music field.

<부록>

실용음악과 교수 인터뷰 질문지

질문
1. 지방의 음대들이 사라지거나 실용음악과로 전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실용음악과의 대다수가 보컬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가수를 꿈꾸는 이유가 있을까요?
3. 한류나 오디션 프로그램이 계속 인기를 얻으면서 실용음악과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클래식음악 보다 대중음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5. 앞으로 실용음악과의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6. 실용음악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클래식음악전공 교수 인터뷰 질문지

질문
1. 지방의 음대들이 사라지거나 실용음악과로 전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2. 한류나 오디션 프로그램이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클래식이 줄어들는데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클래식은 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걸까요?
4. 대중음악이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앞으로 클래식분야와 실용음악의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6. 클래식음악이 주목받고 사랑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용음악 고등학교 교사 질문지

질문
1. 대중음악이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2. 학생들이 클래식음악을 지루해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3. 예전과 비교하였을 때 음악을 전공하는 것에 있어서 학부모님의 인식이 변화된 것 같나요?
4. 학생들이 실용음악을 전공으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준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5. 클래식음악의 입지가 줄어들고 실용음악이 그 자리를 대신해가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